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252호

Thursday, March 13, 2025 A

워싱턴 지역 인플레이션 보다 더 올랐다 직장건강보험 부담액 가장 높아

15년새 두 배 증가, VA 609달러,
MD 608달러, 워싱턴DC 545달러

워싱턴지역 주민들의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 보험료 부담액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의료단체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KFF)이 연방보건복지부 데이터를 토대로 공개한 보고서 <건강보험료, 인플레이션보다 더 올랐다 (Thought Inflation Was Bad?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Rising Even Faster)>에 의하면 2008년 버지니아의 민간부문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당 월평균 보험료(고용주 부담분 포함)는 약 1000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2000달러에 근접했다.

최근 1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버지니아 직장인의 월 평균 납입 보험료(고용주 부담분 제외)는 609



달러로, 애리조나(618달러), 노스 캐롤라이나(617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메릴랜드도 608달러로 4위를 차지했다.

직장 건강보험료를 시정부가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워싱턴DC는 545달러로 다소 낮았다.

전국적으로 550달러가 넘는 곳은 버

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13개주에 불과했다. 제임스 빌헬스트르 제임스 메디슨 대학 교수는 "최근 수년간 보험료 인상이 임금 인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보험료 상승 폭은 특히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김옥채 기자

>>2면 '직장 건강보험'으로 이어집니다

중국계 불법채주 골드바사기 실행

MD 주민 79만달러 사기 당해

정부요원을 사칭해 거액을 편취한 중국계 불법채주에게 실행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피고 우웬웨이 선(35세) 등은 정부 요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정보가 노출 돼 은행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고 위협했다.

범죄 일당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금 거래상에게 돈을 송금하고 금괴를 배송받은 다음, 연방 재무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면서 대리인을 만나 은밀히 금괴를 넘겨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피였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내에서만 모두 5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세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6년 6개월, 5년, 18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우웬웨이 선은 7년전 중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채주로 밝혀졌다.

피고는 자신이 사기일당 윗선에 고용돼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올 경우 사례비 2천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일당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보유한 은행 예금을 골드바로 바꾸도록 설득했다.

범죄자들은 주로 자신들을 연방거래위원회(FTC)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전화발신지는 워싱턴DC가 아니라 덴마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모두 78만9천달러를 사기 당했으며 최근 주재 차압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메릴랜드 검찰은 범죄 일당들은 주로 불법채주를 고용해 현금이나 골드바 수거책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피고 선은 복역 후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김윤미 기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회피 시도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의 사실' 부분 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해당 조항에 '행위'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

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자·가족관계·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애틀랜타 스파 총격범' 사형 가능성 열려

법원, 피의자 자백 증거 채택
4년전 한인 4명 등 8명 살해

한인 4명 등 총 8명을 살해한 애틀랜타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5·사진)에게 사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재판을 진행중인 풀턴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롱의 초기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살인 등 19개 혐의로 롱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롱은 이미 또 다른 범행 장소인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의 수피리어법원에서 4명을 살해한



롱이 범행 직후 체포돼 경찰에 진술한 유죄 인정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풀턴 카운티 검찰은 배심원단에게 롱의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배심원단이 유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체로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열린 롱의 변론 후, 우랄 그랜빌 판사는 피의자

평결을 내릴 경우 판사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롱은 지난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영스 아시아인 마사지 업소에 침입 4명을 총격 살해했다.

이후 그는 30마일 남쪽에 위치한 애틀랜타로 차를 몰고 가 골드스파와 아로마테라피 스파에서 50~70대 한인 여성 4명(유영애, 박순정, 김순자, 현정 그랜트)을 총격 살해했다. 총격사건 직후 현지 경찰은 플로리다로 도주하려던 롱을 체포했다. 롱의 다음 심리는 4월 말 열릴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철,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구입
순금 야기 불변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당신보다 당신의 집을 더 잘 아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슈나이더 내집장만 부동산 팀은 열심히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프로로서 일 잘하는 부동산입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한국 기업 미국 진출시,
미국정부에서 제공하는 Investment incentive process, IRA 법안 관련과 New market tax credit 도와 드립니다.
미국 시장 진출전 지역 정하시기 전에 상담 하셔야 합니다

승경호 추천 매물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버지니아 맥클린 태권도/운동 도장자리 모두 꾸며져있는자리 5000 SF	제과점 자리 메릴랜드 칼리지파크 제과점 자리 3000 SF	Beer and Wine Shop VA 알링턴, 35만불, 주1만8천불수입 2400 SF, 렌트 \$7200, 조건부임대계약 MD 몽고메리카운티,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조건부임대계약
자동차 메카닉샵 버지니아 페어팩스 자동차 메카닉샵 운영하실분 판매가 10만불, 월5만매출, 차고3개	리 커 워싱턴 디씨, 35만불 2000 SF, 창고있음, 렌트 6천불	상가 임대수입 버지니아주, 비엔나, 상가 8백만불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메릴랜드주 발티모어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버지니아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컴퓨터 수리점 버지니아 애쉬번 데이터센터주변, 10만불 연매출 20만, 장비와 인벤토리 포함	K- HOT DOG 집 버지니아주 포트맥밀, 인기 많은 집, 25만불 한달 1만3천불 순수익, 주인없이 운영중	
창고 임대 버지니아 애쉬번 창고 임대 3900 SF, 로딩덕 있음	스시 식당 메릴랜드주 락빌 좋은 자리 5000 SF	

주재원, 사무실, 창고, 공장 전문,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뉴욕, 텍사스, 테네시,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디씨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내집장만”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탄핵 찬반 시위 격화 양 진영 총력전 펼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양 진영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12일 오후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계속됐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규탄했다.

비상행동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내란 수괴를 원천 없이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심 총장이 계속 직을 유지한 채 원칙 없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지속한다면 모든 시민이 나서 검찰을 심판하고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는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 천막에서 이틀째 단식농성 중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야당 의원들도 자리했다.

광화문 서십자각 비상행동 농성장에서는 오전부터 참여연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탈레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저녁에는 동십자각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7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동조 국민의 힘 해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응원봉을 들고 "내란 수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을 규탄한다", "파면만이 답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후에는 안국동사거리로 거쳐 종로2가까지 행진한 뒤 다시 동십자각으로 돌아왔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오후 5시부터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인도를 메우고 재판관들을 겨냥한 퇴근길 '총공'(총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헌

재를 빠져나오는 퇴근 차량을 향해 욕설하거나 "헌재 박살"과 "탄핵 각하"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차 앞을 가로막으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20대 남성이 삼단봉을 들고 헌재 인근을 홍보하다가 경찰이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신분을 묻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위험한 물건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반발하며 한때 소란이 일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밤샘 집회도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다.

오후 10시께 탄핵 찬성 측 약 20명이 "윤석열 파면" 등 구호를 외치며 안국역 일대로 넘어와 탄핵 반대 측과 거세게 뒤엉키는 상황이 연출될 뻔했으나, 경찰이 진입을 막으면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쿠쿠 렌탈 아메리카, 공간활용 UP

종합 가전 브랜드 쿠쿠 렌탈 아메리카에서는 신제품 벽걸이 겸용 공기청정기CAC-AA0910FW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겸용이다. 좁은 생활 공간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벽걸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고, 공간에 여유가 있을 경우 스탠드형으로도 이용하면 된다. 특히 벽에 걸 수 있는 공기청정기인 만큼 제품 폭이 4.5inch의 슬림형으로 설계했다.

공기 청정 면적은 340 sqft.(약 9.5평)으로, 거실이나 1인 가구 생활 공간을 커버한다.

전면 흡입구로 들어온 오염된 공기는 3단계 필터 시스템을 거친다. 프리 필터는 눈에 보이는 큰 먼지와 머리카락, 반려동물 털 등을 걸러낸다.

이후 H13등급의 초미세먼지 집진 필터로 꽃가루와 황사, 분진을 제거하며 탈취 필터를 통해 암모니아와, 아세트알



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등 5대 가스를 제거한 후 상부 토출구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내보낸다.

신제품은 실내 공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계 컬러 라이팅 기능을 탑재했다.

이산화탄소(CO2) 감지 센서로 실내 공기 상태를 측정 후 3가지 색상으로 오염도를 표현해 사용자가 쉽게 실내 공기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

필터 교환 주기가 되면 LED 알림이 점등돼 사용자가 쉽게 교체 진행할 수 있다. 필터는 일체형을 적용했다. 프

리필터는 2~4주 단위로 진공 청소기를 통해 붙어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토탈케어 안심 필터는 1년 단위로 교체를 진행해 필터 교체 및 청소에 드는 수고를 줄였다. 리모컨을 제 공해 원거리에서도 간편하게 바람세기와 취침모드, 꺼짐 예약 등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쿠쿠 미주법인 이원준 법인은 "좁은 공간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새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의지를 밝혔다.

신제품 벽걸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아메리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쿠쿠 렌탈 아메리카 웹사이트 cuckoorental.com 김윤미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페어팩스 2026년부터 식당세 3~4% 부과 방침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식당 음식 서비스에 3~4% 정도의 식당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정부가 식당세를 부과하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했으나, 2021년 법률 개정으로 이 절차 없이 부과 가능해졌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1992년, 2016

년 주민투표를 통해 식당세가 좌절됐으나, 이번에는 법률 개정으로 자의적인 세금부과가 이뤄지게 된다.

카운티 정부는 4% 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1억3천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 중에서 팻 헤리티 수퍼바이저(공화, 스프링필드)만이 명시적으로 식당세를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공군성 차관보에 VA 공화당 의장 지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성 차관에 리치 앤더슨 버지니아 공화당 위원회 의장을 지명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공군에서 30년 근무한 공군 대령 출신으로, 퇴역 후 2009년까지 펜타곤에서 일했다.

앤더슨은 이후 버지니아 하원으로 재직하다 2020년부터 버지니아 공화당 의장직을 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나섰던 형 카오를 해군성 차관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연방교육부 워싱턴DC 청사 폐쇄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교육부 청사가 12일(수) 폐쇄됐다.

연방인사처(OPM)는 조만간 1300여명의 교육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해고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

인다. 일시 해고 조치 대상 공무원은 3월21일까지 직무배제되지만, 6월9일까지 임금을 받게 된다. 구조조정 이후 교육부 공무원은 218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박동우 기자

▶면 '직장 건강보험'에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병원 이용료와 간병 시설의 급격한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및 간병 시설의 소비자 비용은 약 88% 증가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그나마 직장보험을 제공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주민들 역시 높은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메릴랜드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소의 평균 보험료는 2022년 이후 약 22% 상승했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에 따라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실제 부담 보험료를 줄이고 있으나, 향후 보조금 삭감 혹은 폐지가 예상된다.

KFF는 보험료 상승으로 많은 국민들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으며, 예방 의료 서비스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UC버클리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중위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간 약 4%에서 12%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는 높아진 의료 비용이 주로 꼽히고 있다.

입원비, 진료비, 처방약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로 줄어든 이익을 직장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김육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14일(금)	59~45	17일(월)	53~36
15일(토)	66~59	18일(화)	64~45
16일(일)	70~49	19일(수)	74~53

3월 13일(목) 59~41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1-495 가가운1층 콘도 킹스팩 \$1,600 방1, 화장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4,100 방4, 화장 1/2, 차고2	RENT 4층 타운하우스 현면 \$3,900 방4, 화장 1/2, 차고2
--	--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	---	--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UVA 등 60개 대학 반유대주의 조사

워싱턴지역 4개 대학 포함, 교육부 보조금 지급 중단

연방교육부가 유대인 학생 안전에 소홀한 대학 60여 곳에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 콜럼비아, 코넬 대학 등이 등재됐는데, 연방교육부는 선제적으로 콜럼비아 대학 보조금 4억달러를 취소했다.

워싱턴 지역 대학 중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 버지니아 대학, 아메리칸 대학, 조지 메이슨 대학이 포함돼 있다.

이들 대학은 유대인 학생에 대한 신변 위협, 괴롭힘, 차별 등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연방 보조금

을 받는 기관이 인종, 피부색,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위반할 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1년 넘게 지속된 끝없는 반유대주의적 사건들로 인해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대학 당국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학들은 납세자들로 부터 받는 막대한 공적 자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지원은 특권이며 이는 연방 차별 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학교, 대학에 대한 모든 연방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7일 뉴욕의 컬럼비아대가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했다며 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했다.

현재 여러 대학이 반유대주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하버드대학은 연방정부 보조금 동결을 예상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교수진과 직원 채용을 잠정적으로 동결했다. 530억 달러의 기금을 보유해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조차 연방 정부의 지원 중단 가능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윤미 기자

재미과기협 수학·물리 경시대회

4월 5일 개최, 수상자

한화 수학 올림피아드 참여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오태환, 이하 KSEA)는 차세대 꿈나무 과학기술리더 양성을 목표로 제 25회 전국 수학 및 물리경시대회(2025 National Math and Physics Competition, 위원장 권오봉 박사)를 4월 5일(토) 개최한다.

전면 현장 경시대회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에는 4학년부터 1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경시대회와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 경시대회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2025 전국 수학 경시대회는 한화 그룹과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전국 수상자들 가운데 선별된 참가자들은 올해 한화 수학 올림피아드 참여 기회 및 한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국 수학 및 물리경시대회 등록은 오는 31일 까지 웹사이트(<http://nmsc.ksea.org>)에 접속하여 23개의 지부 가운데 참석이 가능한 지부를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등록비를 지불하면 된다.

경시대회 일시는 수학경시대회의 경우 4학년-11학년은 4월 5일(토) 오후 2시에 시작되며, 9학년-12학년 대상의 물리경시대회는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에 시행된다.

경시대회 문제는 경시대회 위원회에서 출제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배포되며 수학경시대회의 파트1은



20개의 객관식 문항, 파트 2는 5개의 주관식 문항들로 구성된다. 학년별 전국 상위 3위 선정자들은 전국 경시대회를 수여받게 된다.

고교생 대상 물리경시대회도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12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75분간 시행된다.

KSEA는 학생들의 경시대회 준비를 위해 NMSC 웹사이트(<https://nmsc.ksea.org>)에 샘플 문제들을 게재하고 있다.

시상식은 각 지부별로 개최하여 지부상을 수여하며, 학년별 전국 수상자들은 별도로 개최되는 전국 대회 온라인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각 레벨별 1, 2, 3등)을 수여받게 된다.

> 온라인 등록 및 경시대회 정보: <https://nmsc.ksea.org/>

> 경시대회 문의: nmscinfo@ksea.org

김윤미 기자

리얼아이디 비율 VA 51%, MD 96%

리얼아이디 시행 시기가 5월 7일로 다가왔으나 버지니아의 발급률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차량등록국(DMV)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버지니아의 운전면허 발급자 680만명 중 리얼아이디 보유자는 350만명으로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반면 메릴랜드는 482만명이 발급받아 이행률이 96%를 넘어섰다.

메릴랜드 미발급자는 5만 7580명 뿐이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전국적으로 1억 6천만명이 발급받았으나 이행률은 5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리얼 아이디 법률은 2001년 9월 11테러 이후 신분 증명 요건을 강화한 아이디 발급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론화됐으며

2005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됐다.

첫 시행 시기는 2008년이었으나 각 주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모두 8차례 이상 연기돼 마지막 시행 예정시기는 2025년 5월 7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행률 속도를 감안하면 5월에도 58% 정도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또 한차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사상 최대 인구가 공항에 몰린 작년 추수감사절 시즌을 보면 준비없이 리얼아이디 법률을 시행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얼아이디 없이 공항에 나오는 탑승객들로 인해 공항 업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아이디 법률은 18세 이상 주민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신분증명을 위해 강화된 신분증명 요건을 충족시키는 리얼아이디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으려면 여권이나 영구권, 출생증명서 등 신분증명서 1개, 유틸리티 고지서나 은행 계좌 고지서, 세금보고서류 등 거주 증명서 2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김옥채 기자

MD 무어주지사 지지율 하락세 세금 인상 등 주민 반발 커

웨스 무어(민주) 메릴랜드 주지사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릴랜드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콘

잘레스 리서치 앤 미디어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무어 주지사 지지율은 55%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1월 조사의 61%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조사결과 예산 부족에 따른 세금 인상 문제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다.

메릴랜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41%였다. 57%가 현재 가정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답했으며, 37%가 좋다, 5%가 매우 좋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유권자의 45%가 좋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유권자의 46%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57%는 1년 전보다 유틸리티 비용 지출이 더 많다고 답했으며, 80%가 유틸리티 비용 증가를 매우 걱정했다.

설탕이 든 음료수에 대한 세금 징수 방안에 대해 63%가 찬성했다.

메릴랜드 의회는 최근 설탕 함유 음료 1온스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메릴랜드 등록유권자 804명을 대상으로 지난 5-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5%였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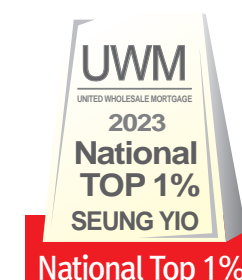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인

DUO NY 212-915-7115

WWW.UMNLOAN.COM

신뢰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14개 주 Lender License를 보유하고 뉴저지와 조지아에 Local Office가 있어 다른 주에 투자 또는 이주시에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꿈을 이루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ender Licensed State (VA, MD, NJ, GA, PA, TN, NC, AL, MI, FL, DE, WV, SC, CA)



대표전화: 703-204-0022 | 703-268-3954



CEO **손여 Sean H Yio**

NMLS #: 262952 / M.B.A., MS Finance
NMLS #: 2425871 (회사)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현금 리베이트’ 미끼 시니어 의료사기 주의

포커스

메디케어·메디칼 가입자들
홈케어·호스피스 등록 유도
정보 이용 진료비 불법 청구
적발시 공범으로 처벌 받아

김성태(가명·81)씨는 얼마 전 ‘H헬스’ 마케터 말에 속아 메디케어·메디칼 보증을 끊기는 소동을 벌였다. 김씨는 “아는 사람이 홈케어 서비스에 가입하면 3개월에 600달러씩 현금을 주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부부가 가입해 1200달러를 받았는데 보험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니 불법이라고 해 불안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들 가입한다”고 전했다.

이은애(가명·83)씨는 양로보건센터 친구들이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현금을 받는다는 말에 혹했다. 이씨는 “한 친구는 5년 넘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현금을 받는다고 자랑한다”고 말했다.

시니어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미끼로 ‘홈케어 또는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업자들은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아파트 등을 돌며 ‘가입 동의 시 3개월에 500~600달러 현금 리베이트’ 등을 내세워 가입을 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과 가주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

케어와 메디칼 전문 한 에이전트는 “김씨의 경우 현금을 받은 뒤 겁이 나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라며 “홈케어 신청을 받아 간혹에서는 김씨 이름으로 각종 검사와 의료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씨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다는 것에만 혹했다”고 말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현금 리베이트를 명목으로 홈케어 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등록하게 한 뒤, 사실상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니어가 제공한 개인정보로 불필요한 의료행위 및 보증을 청구해 거액의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조직은 한

인 시니어에게 3개월에 600달러 현금을 주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만 달러를 정부에 청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시니어 당사자는 이런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호스피스 서비스 등록을 유도할 때 시니어 본인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상 호스피스 서비스는 건강이 악화해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환자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한 번 등록되면 일반 질병 진료, 치료, 처방 등이 제한된다고 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 일반 메디케어나 메디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의명을 위한 호스피스 업계 관계

자는 “시니어 호스피스 서비스는 연방정부의 보험 지원”이라며 “우선 환자의 건강상태가 손쓸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치의의 ‘말기질환 진단서(Certification of terminal illness)’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시니어가 등록했다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 마케터, 의사 모두 불법을 저지른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속이면서 불필요한 메디케어·메디칼 서비스에 등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면 건강보험 혜택과 웰페어까지 다 중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규제 줄이고 세금 낮추는 민생법안 발의할 것”

가주 상원의원 취임 100일

‘자이언트 킬러’ 최석호(사진) 가주 상원의원의 별명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상대는 막대한 후원금을 등에 업은 현역 의원 조시 뉴먼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6075표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독식한 가주 의회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당한 법안 심의와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그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는지 들어봤다.



점 없나.

“의회는 정당한 법안 심의와 토론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주 의회는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현재 가주 주지사 사면권을 자신의 친인척에게 사용 못 하게 하도록 가주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 해결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세금 인상, 범죄자 형량 감축, 이민자 보호 도시 문제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고 있다.”

- 공화당 소속으로서 법안 발의 전략은.

“주민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초당적인 법안을 많이 발의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많이 만나고 협의한다. 그들에게 내 발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화당이 가주 유권자와 가까워질 방법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화당도 이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뉴섬 주지사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당파적 정책만 펼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보호 정책은 잘못된 결정이다. 불법 이민자를 위해 세금 1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LA 산불 대응에서는 화재 관리에 이어 물 관리도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 한인사회 위한 의정 활동 계획은.

“한인의 날, ‘유관순의 날’ 등 기념일 결의안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춰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야 회사가 잘 되고,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다.”

- 가주 상원으로서 최종 목표는.

“가주 의회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권자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경준 기자

‘버려진 양심’ 쓰레기 불법투기

LA시 2개월간 2만2046건
작년에 비해 36%나 급증
수거 요청하면 무료 처리

LA시의회 지구별로 살펴보면 8지구가 3329건으로 가장 많았다. LA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는 1594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6개 지구의 증가율은 31~6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밴나이스와 선밸리의 쓰레기 불법투기가 688건과 8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밸리 지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나 증가했다. 이밖에 노스ハリ우드, 하이드파크, 사우스센트럴, 리시다, 이스트ハリ우드, 보일하이츠, 버몬트스퀘어 지역 모두 쓰레기 불법투기가 5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의 크기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매체 크로스타운은 311민원접수 통계를 인용해 ‘건설 잔해, 유해 폐기물, 개인 가전 및 가구’ 등이 골목과 공터에 버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 또는 업체들이 대형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재 기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이 여전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일부 지역은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LA시가 공개한 311민원접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사이 LA시에서는 총 2만204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접수됐다. 이같은 숫자는 지난 2018년 이후 최대다.

증가율도 가파르다. 올해 첫 두 달간 건수는 작년 동기의 1만6212건에 비해 36%나 급증했다. 이 기간 쓰레기 불법투기는 2018년 1만5275건에서 2020년 2만125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 1만3556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초 쓰레기 불법투기는 지난 8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60대 한인 안마사 성폭행 혐의 체포

60대 한인 남성 안마사가 고객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뉴저지주 워렌카운티 블레어스타운 경찰국은 이 지역 ‘심플리 데이스파(Simply Day Spa)’에서 일하던 안마사 장 모씨(63)씨를 2급 성폭행과 12건의 4급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 2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역 매체인 WRNJ에

따르면 장씨는 뉴워크 리버티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검거됐다.

수사 당국은 장씨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장씨는 2급 성폭행은 최대 10년, 4급 강제 추행은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한길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타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도 못쓰겠네

이런 자국 있으면 사용 금지 “바이러스 질병 노출” 경고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할 때 움푹 팬 자국이 있거나 얼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약 사용자들이 남긴 흔적일 수 있어 무심코 휴지를 사용했다가 전염성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공중화장실 휴지에서 발견한 얼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을 보면 두루마리 휴지 곳곳에 움푹 팬 자국이 있고 얼룩이 남아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공중화장실 휴지에서 발견된 자국들. [틱톡 캡처]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공중화장실 휴지에 묻은 작은 얼룩은 마약 사용자

가 주사기 바늘을 청소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해당 자국은 불법 약물을 주사할 때 사용되는 바늘에서 묻어나온 피 얼룩일 수 있다”며 “이 혈액 자국으로 인해 바이러스성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지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라 녹색과 갈색 등 얼룩이 있는 경우에는 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휴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규슬 기자

미 동아태 차관보 디솜버... 아내가 한국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태(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에 마이클 디솜버(57) 전 태국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디솜버 대사가 차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상원에서 청문회를 거쳐 인준을 받아야 정식 임명된다.

디솜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말기인 2020년 3월~2021년 1월 20일 트럼프 집권 1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태



디솜버(왼쪽 셋째) 지명자 가족. [사진 링크드인]

국 대사를 지냈다. 태국 대사 시절 당시 트럼프의 기조에 발맞춰 언론 기명 칼럼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디솜버 전 대사는 부인이 한국계로 일상적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한다. 서유진 기자

대한항공, 41년 만에 새 옷 입고 난다

“국적기 품위, 한국 우아함 강조” 도쿄 나리타행 항공편 첫 투입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로고(CI)를 공개했다. 서울올림픽을 4년 앞둔 1984년 ‘태극마크’를 단 이후 41년 만의 CI 교체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본사 격납고에서 ‘라이징 나이트(Rising Night)’ 행사를 열고 새로운 CI를 공개했다. 기존 태극 마크에 있던 빨간색·파란색을 빼고 다크블루 단색을 사용했다.

장성현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한항공을 연상케 하는 태극 심볼을 교체한 게 아니라 변화를 준 것”이라며 “국적기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한국적인 우아함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 CI가 적용된 항공기 외관 디자인도 공개됐다. 하늘색이 기존보다 더 짙어졌고, 메탈(금속성) 느낌을 더했다. 대한항공 로고는 기존 ‘KOREAN AIR’에서 ‘KOREAN’으로 바뀌었다. 아메리칸항공과 스위스항공, 타이항공 등이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새 디자인이 적용된 보잉 787-10 항공기를 12일 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대한항공의 신규 기업 이미지(CI)를 공개했다. [공항공사 기자]

전 인천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로 향하는 KE703편에 첫 투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새 기내식 메뉴도 공개했다. 서울 한남동 레스토랑 ‘세스타’의 김세경 오너 셰프와 협업해 개발했다고 한다. 나물과 소고기 위주였던 기존 비빔밥(일반식 기준)은 연어비빔밥, 낙지제육덮밥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두부팻타이, 매운 가지볶음, 로제 파스타 등이 추가된다.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문어 영양밥과 차돌박이 비빔밥, 신선로 등 새로운 한식 메뉴를 더했다. 칫솔 등 기내 제공 편의용품도 비닐 포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로 교체한다.

대한항공 신규 기내식과 리뉴얼된

기내 서비스는 오늘(12일) 뉴욕, 프랑스로 파리, 영국 런던 등 장거리 주요 10개 노선에 우선 적용된다. 올해 6월부터 장거리 전 노선에, 9월부터는 중·단거리 모든 노선에 확대한다.

이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정비 등 안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우 기자

세금 환급금 6.3% 늘었다

200불 늘어 평균 3382불 총액·건수도 8.1%·1.7% ↑

국세청(IR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금 신고 기간 납세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8일까지 접수된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한 평균 환급액은 3382달러로, 지난해 3월 1일까지의 평균 환급액인 3182달러보다 200달러 증가했다. 증가율은 6.3%였다.

환급금 총액과 발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까지의 환급금

총액은 12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총 환급 건수는 3690만 건으로 1.7% 증가했다.

환급 방법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다이렉트 디파짓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건수의 약 98%에 해당하는 3610만 건이 다이렉트 디파짓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통한 총 지급액은 1240억 달러로 8.2% 증가했고 평균 환급액은 올해 3436달러로 5.9% 증가했다.

조원희 기자

브라질, 미국에 계란 수출 확대

계란값 급등으로 행정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브라질이 미국으로 계란 수출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계란 수출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ABPA는 올해 계란 수출 전망치를 3만5000t(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수출 물

량(1만8000t)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히카르두 산틴 ABPA 회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특히 미국이 올해 초부터 계란 수입에 나선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은 대미 수출에 필요한 위생 요건 문제로 소비자 판매용 신선란을 수출할 수는 없지만, 미국 업체들은 계란을 수입해 가공할 수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유저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저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역조)방
웨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미국·우크라이나 '30일 휴전안' 합의... 푸틴 결정만 남았다

트럼프 "탱고 추르면 두 사람 필요" 러 "미 구체적 설명 들어보고 대답"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간 휴전하기로 11일(현지시간) 전격 합의했다. 휴전이 이뤄진다면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포성이 잠시나마 멈추게 된다.

미·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친 고위급 회담 후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윌츠 국가안보보좌관, 우크라이나에선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 등이 이번 회담에 참석했다. 양국은 광물 협정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기로 합



우크라이나 병사들 "미국 지원 감사"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근처 전선에서 미국 지원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의했다. 미국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정보공유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합의안에선 휴전의 최대 쟁점인 영토 문제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의 '양보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일단 수용한 모양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전날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합병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되돌리긴 어렵다"며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중요

하다"고 말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백악관 회동 파행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으로 전선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의 균열로 우위를 잃어버린 젤렌스키 입장에선 휴전안 동의가 현명한 선택"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전방위로 러시아 설득에 나선 방침이다. 트럼프는 "탱고를 추르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푸틴 대통령도 (휴전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동의 확률이 75%는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12일) 러시아와 큰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스티브 윌트코프 미 중동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휴전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때려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했고, 러시아가 화답하도록 쥐어짜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푸틴이 휴전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협상 카드로 여

겨져 온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는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영토를 인정하지 않으며 휴전안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또 영국·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 평화유지군의 전후 우크라이나 주둔 계획을 반대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30일간 휴전안'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면서 "미국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뒤에야 휴전안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가 관세나 추가 제재 카드도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면 푸틴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CNN은 "푸틴은 자신이 트럼프의 파트너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군사적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휴전을 미루는 '시간 끌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승호 기자

러시아 "쿠르스크 12곳 재탈환"... 점령지 잃는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악재

러군, 빼앗겼던 영토 줄줄이 되찾아 우크라이나, 최대규모 장거리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30일 휴전안'을 11일(현지시간) 수락했지만, 전선에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쿠르스크 지역 일부를 탈환했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

을 펼쳤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하루 동안 쿠르스크 지역의 12개 마을과 100km의 영토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12개 마을은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내 주요 도시인 수자를 둘러싸고 있다. 러시아 특수부대는 지난 주말 가스관을 이용해 수자 침투 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타스통신

이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 병력은 가스관 내부를 기어 약 15km 이상 전진한 뒤 우크라이나군을 급습했다. 러시아군의 압티 알라우디노프 아흐마트 부대장은 "이번 작전 이후 2~3개 마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하고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이 며칠 내로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점령지 상실은 우크라이나에 큰 악재다. 마땅한 종전 협상 카드가 없는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러시아 공격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군 측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정유시설"이 핵심 공격 대상이

었다. 구체적인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업체 측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만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밤 러시아 10개 지역 상공에서 337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 중 91대는 모스크바 상공에서 파괴됐다"며 "쿠르스크에서도 126대의 드론이 격추됐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미 철강 관세에... EU·중국·캐나다 보복관세 예고

EU "내달 미 선박 등 41조원 관세"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표하자 유럽연합(EU)·중국·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신평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는 이날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 유로(약 41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위는 세계 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상무장관도 "실망스럽다"며 국가 이익을 위한 대응을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조너선 윌킨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도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철강업체들은 반기지만,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 비용이 상승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12일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2.9%)를 소폭 밑도는 수치로, 1월(3%)과 비교해 상승률이 둔화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CPI 상승률이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이날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김남준 기자



테슬라 볼타자 테슬라 사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11일 백악관에서 테슬라 모델S 세단을 함께 시승하고 있다. 테슬라에 대한 테라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승식으로 머스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EPA-연합뉴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면함이 없으므로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각종 비자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 결혼 이민
- 추방 방어
- 가족 초청 이민
- 망명 신청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새봄맞이 3월 프로모션

기간 2.27.2025-3.27.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3월 내 설치

최대 \$300 VISA e-Gift Card 증정



* 2개 렌탈 계약 시

* 3개 이상 렌탈 계약 시

쿠쿠 베스트 셀러 제품
제품 구매/
렌탈 계약시

최대
\$300
OFF



월 렌탈료
\$2
OFF



BRAND STORE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240-595-2257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WS-AO201W, CBT-IS1131REW/RRW, CBT-I1030R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이번엔 소고기 트럼프 관세전쟁 확산 먹구름

미업계 “한국, 30개월 이상도 수입을” 트럼프, 상호관세 명분으로 쓸수도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해소해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이를 제한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인 수입 규제를 구실로,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하다는 것을 알지만 무시하면 안 될 이슈”라며 “중국-일본-대만 등은 월령 제한을 폐지했으니,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2013년부터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인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

하기로 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였다”며 소고기 시장 완전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은 업계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NTE에 담는다.

전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비중이 높지는 않다”며 “그러나 미국 업계 입장에서 수출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이 실제로 요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본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이 한국 소비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를 건드려선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냉장용(9억4000만 달러)·냉동용(12억 달러) 모두 한국이 1위 수출국이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의 48.1%를 미국에서 들여왔는데, 월령 제한을 푼다고 미국산 수요가 더 늘어날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국

한우협회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미국 내 협회가 의견을 낸 정도라 당장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관료가 축소된 미국으로서는 잉여 제품의 수출을 한국 시장 등으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 문제를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상호관세의 구실로 삼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매길 때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불공정한 규제까지 반영하겠다고 했다. USTR은 미국 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이들이 낸 의견서들

USTR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한국이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조금 지급 ▶저렴한 전기요금 ▶약값 통제 ▶환율 관리 ▶노조 억압 ▶콘텐츠 규제 등을 꼽았다.

미국철강협회(AISI) 등은 USTR에 “한국 정부가 유리한 조건의 대출과 수출 금융, 보조금 지급과 시장가격보다 낮은 전기요금 등을 활용해 한국의 철강업체들을 보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국 정부가 자동차 노동자 급여 인상을 억제한다”면서 “이런 노동 조건이 미국 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국영화협회(MPA)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망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며, 외화상영 일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쿼터 등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구실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

이 크다”며 “미국 업계나 정부가 요청한 비관세 장벽 중 스크린 쿼터처럼 산업 환경의 변화로 효과가 미미해진 규제를 상징적으로 해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키는 식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다. 2018년 당시 트럼프 1기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t의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온 한국도 25%의 고율 관세 적용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관세는 더 높을 수도 있다. 관세도 큰 성과지만, 가장 큰 성과는 그들(해외 기업)이 미국으로 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원·임성민 기자, 김형구 기자

경찰, 현재 일대 야외기동훈련 인근 기업엔 재택근무 요청 검토

선고 전까지 기동순찰대 230여명 투입해 도보 순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벌이며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종로·중구 일대에서 FTX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기동순찰대 32개 팀 소속 230여명을 종로구와 중구에 사전 배치해 도보 순찰을 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은 이날 종료·중구를 8개로 나눈 권역을 모두 방문해 권역별 담당 경찰서장과 함께 경찰관 배치와 운용 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해 질서를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인근 기업들에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근에는 현대건설 본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기관의 사무실이 있다.

尹 탄핵 선고 앞두고 13일부터 현재 상공서 드론 등 비행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테러 및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상공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됐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고시보(노담·NOTAM)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부터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현재 청사 반경 약 1NM(해리·1.85km)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현재 청사 주변에서는 드론을 비롯한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단 119 등 응급·구조기의 비행은 허용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노담



지난 12일 상공에서 촬영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을 추가로 발령해 오는 31일까지 비행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토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현재 상공 일대를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는 드론 등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불법으로 드론을 날리면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기체를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번 비행금지구역 지정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결과에 반발해 현재 주변에서 드론을 동원한 테러·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권한대행 “미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해 한미동맹 격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날 인터뷰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같은 날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한 가운데 이뤄졌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을 향할 것을 최 권한대행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최 권한대행의 11일 국

무회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관세 장벽을 철폐해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한국의 대비 무역흑자가 “일시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한국의 대비 무역흑자가 “일시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했다.

WSJ도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한국의 대비 무역흑자가 “일시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했다.



서울경찰청, 종로·중구 경찰관 배치, 운용 계획 점검 현장 [서울경찰청 제공]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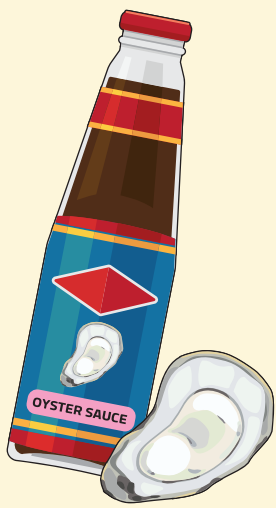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손 하이, 프로스미드 2025 새싱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6. Clifton 싱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새집처럼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	11. 캔들리 하이 타운 \$599,999 방 3, 화 3.5, 1,980sqft, 맥, 워크아웃 지하(방, 풀백스), 50/286
2. 캔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rd	7. 맥클린 하이, 럭서리게이트 싱글 (Evans farm) \$2,425,000 방 5, 화 5, 7,590sqft, 차고 3,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집 디자인	12. 페어팩스 타운 \$800,000 2010년, 방 3, 화 3.5, 차고 2, 2,300sqft, fairOkas mall/50/66/286
3. 캔들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성당근처, 66/288/50/29	8. 맥클린 하이, 럭서리 싱글 \$2,799,000 방 6, 화 6.5, 6,0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집 디자인, 맥클린하이, 풀백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3. 센터빌 FAIR CREST TOWN \$695,000 방 3, 화 3.5, 차고 1, 엔드유닛, 맥, 펜스, 파월트, 센터빌 하이
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슬러 팩넵, 6,228sqft	9. 맥클린 하이 싱글 \$2,599,000 방 7, 화 7.5, 6,100sqft, 차고 2, 전부 업그레이드, 모던 새집, 고품격 디자인, 맥클린하이, 풀백스, 495/66/267/123/Old Dominion Dr	14. 페어팩스 콘도 \$580,000 방 2, 화 2, 차고 2, 엘리베이터, 계단 없는 단층 콘도, 1,078sqft, 콘도비 \$534,777/m, 66/286/Fair Okas mall, Fair lakes mall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매인/ 풀백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10. 페어팩스 중심 타운 \$825,000 방 3, 화 3.5, 3,000sqft, 236/66/29/50, GMU, 지하워크아웃, 맥, 펜스	15. 센터빌 중심콘도 \$460,000 방 2, 화 2, 차고 1, 도서관 앞 1230sqft, 콘도비 \$348,777/m, Giant, 66/28/29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다양한
요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



MAR. 13th - MAR. 20th, 2025



Asian Cooking Essentials Kit
이금기 아시안 쿡킹 에센셜 키트

PREMIUM OYSTER SAUCE (18 OZ) +
 PREMIUM SOY SAUCE (16.9 FL OZ) +
 DARK SOY SAUCE (16.9 FL OZ)/PKG

\$9.99

~~\$12.99~~



Home Cafe Vibe!

Dong Gu Bread Plate Mug Set

동구 빵 접시 머그컵 세트

\$11.99

~~\$19.99~~

PLATE (5.5 IN X 5.5 IN) + MUG (360 mL)/SE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정부, 75년만 상속세 대수술...야당 덜떠름

개인별 과세 '유산취득세' 발표
여야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민주당 "추경부터 먼저 해야"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금액'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려준 유산 총액에 매기던 것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자녀 1명이 10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은 가구와, 자녀 5명이 50억원을 10억원씩 나눠 받는 가구가 있다면 후자가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는 구조다.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망자의 가족들이 'N분의 1'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를 뼈대로 한다. 세금도 물려받은 만큼만 내는 게 형평에 맞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대로라면 현재 6.8% 수준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든 전망이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증한 현실도 반영

구분	정부안	야당안
과세 방식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환	유산세 유지
공제 제도	배우자 한도 유지 (최저한도만 조정)	배우자 한도 폐지

했다. 국제 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2000년 0.48%에서 2023년 2.48%로 증가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춘 측면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나라는 24개국인데, 이 중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인적공제 제도는 상속인별 기준으로 손본다. 그간 공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인적공제를 확대한다. 대표적인 게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진다.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를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배우자공제는 최대한도(30억원)는 그대로 두고 미세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은 유산을 자녀가 받아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최소공제(5억원)를 적용하는데 이는 폐지한다. 대신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전



상속세, 정부·야당·야당안 따져보니

구분	정부안	야당안	야당안
과세 방식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유산세 유지
공제 제도	일괄공제 폐지	일괄공제 5억원 → 10억원 상향	일괄공제 5억원 → 8억원 상향
	자녀공제 5000만원 → 5억원 상향	입장 없음	입장 없음
	배우자공제한도 유지(최저한도만 조정)	배우자공제한도 폐지	배우자공제한도 폐지
최고세율	현행 유지(최고 50%)	50% → 40% 인하	현행 유지(최고 50%)

액 공제하기로 했다.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 개편안만 반영해도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다. 상속재산이 20억원,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 자녀 1)대로 물려받으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제외한 6억4286만원이 과세표준이다. 대략 1억3000만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 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없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거란 평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재산 10억~20억원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증여 재산 규정도 손본다. 현행 규정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돼 있다. 그런데 기부처럼 제삼자에게 증여도 포함하는 게 문제였다.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인이 세금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앞으로 제삼자 증여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최고세율 인하(50%→40%)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고세율 인하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개편안으로 인해 연평균 2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세수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데 주력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발표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다. 국제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데 유산취득세 도입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논의가 이어오던 와중에 기재부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를 꺼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재부는 추경안부터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길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은 집을 수리하려는데 정부가 불속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정원석·임성민 기자, 강보현 기자

정부안대로면, 배우자·자녀 둘 '20억 집 상속세' 1.3억→0원

상속세 개편안, 모의계산 해보니

정부가 상속세를 수술대에 올렸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겠지만 시행된다면 75년 역사의 상속세 틀 자체가 달라진다.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뀔 때 사례별로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토대로 모의계산을 한 결과다. ①20억원 법정 상속비율대로 물려주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자녀가 둘인 경우를 가정해보자. 배우자가 10억원, 자녀가 각각 5억원씩 받을 때 현행대로 하면 이 가구의 최대 공제액은 배우자공제 8억5714만원,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13억5714만원이다. 공제를 덜어낸 과세표준은 6억4286만원. 이 구간 세율(30%)과 누진공제액(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1억2887만원이다. 정부 개편안대로 바꾸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최종 납부세액 역시 0원이다. 상속세를 1억2887만원 절감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현행 규정에선 최종 납부세액은 3억1594만원이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1억1917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보다 상속세 부담이 1억9677만원 낮아진다.

②자녀 많을수록 혜택도 크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괄공제(5억원)를 없애고, 자녀공제를 상향(5000만원→5억원)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배우자는 없고, 자녀 4명에게 20억원을 물려줄 경우 현재 기준에선 일괄공제를 제외하면 더는 공제 항목이 없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5억원이고, 이 구간 세율(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면 4명이 똑같이 5억원씩 나눠 받으면 각각 자녀공제 최고 한도를 채워 과세표준이 0원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자녀가 구일수록 상속세 절세 효과가 크다.

③배우자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다를까

현 기준에서 배우자가 없다면 20억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원씩 물려줄 때 일괄공제(5억원)만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고, 세율 40%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면 자녀 둘은 각각 5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세율이 20%로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도 1인당 8730만원으로 내려간다. 현재 기준보다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 2억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④50억 자산가 세 부담도 줄어든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

으며, 자녀가 둘일 때 법정 상속비율대로 하면 배우자는 21억4286만원, 자녀 둘은 각각 14억2857만원씩 받게 된다. 배우자공제 최대액은 30억원이므로 배우자는 상속세 전액을 공제받는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까지 제하면 과세표준은 23억5714만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은 7억5937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 1명당 최종 납부세액은 2억1201만원이다. 가족 전체로 보면 3억3534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 법정 상속비율대로 받지 않고,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각 20억원씩 물려받을 때도 결과는 비슷하다.

세종=정원석·임성민 기자

실내 골프 연습장

버지니아 최고의 스크린골프 시설 완비!!

GOLF TRAINING REVOLUTION

찬들리 GTR

• 인도어 골프 • 실내 연습장 • 스크린 골프 • 골프레슨

깨끗한 최첨단 시설에서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세요!

703-817-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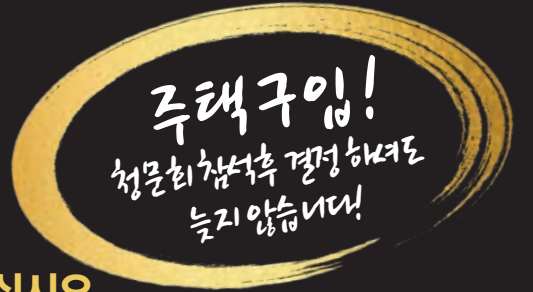
OPEN HOURS

1월~3월까지
월~금 10:00AM~10:00PM | 토~일 8:00AM~10:00PM

3656 Centerview Dr., Suite 6, Chantilly, VA 20151 (찬들리 롯데 마트에서 1분 거리)

워싱턴 최고의 부동산 청문회가 시작된다!

부동산 청문회



워싱턴 최고의 부동산 청문회가 시작된다!

내집장만 신문의 편집자들을 모두 모은 자리에서 그들만의 **천기누설**을 기대하십시오.
부동산 관계자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타 부동산 소속 관계자분들도 출입을 금합니다.

주택·비즈니스 관련

1. 워싱턴 D.C. 및 인근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지역은 어디인가요?
2. 오픈하우스에서 많은 경쟁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집을 꼭 구매하고 싶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3. 새로 분양하는 주택 단지를 방문했는데, 모델하우스는 아름다웠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땅만 보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집을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4. 인스펙션 없이 집을 구매했는데, 거주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시작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5.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권 이후,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6. 지하에 있는 Half-Bath(화장실)에 샤워 시설을 추가하여 Full-Bath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허가가 필요한지, 비용적인 측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7. 현재 집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As-is) 판매하는 것이 좋을지, 일부 보수를 진행한 후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됩니다. 어떤 선택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8. 집을 사고 팔 때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클로징 비용 및 기타 추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9. 첫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 최근 부동산 커미션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와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11. 20년간 운영해 온 비즈니스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적절한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적절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이틀·등기 관련

1. 집을 평생 내 것으로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집은 내 것이었다” 고 주장한다면?
2. 가족에게 물려주려고 산 집인데, 나중에 소유권 문제가 생기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3. 3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산 내 집, 과거의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나요?
4.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누군가에게 팔린다면?
5. 집을 사고 난 후, 그 집이 원래 팔릴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융자 관련

1. 평생 내 집을 꿈꿨지만, 처음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처음 주택 구매자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2. 대출을 잘못 받으면 수천불을 더 낼 수도 있는데, 나에게 유리한 주택 융자 조건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된다면, 내 집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4.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일까요? 주택 융자가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주택 융자를 활용하면 오히려 더 나은 재정적 기회를 만들 수 있나요?
6.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어떤 것이 내 상황에 더 유리할까요?

보험 관련

1. 내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보험료를 아끼려다 오히려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나요? 내가 가입한 주택보험이 충분한 보장을 해줄까요?
3. 도둑이 들어 소중한 가족 유산이 사라졌습니다. 내 보험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추억도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4. 내 가족이 머무를 곳이 없어진다면, 보험이 집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5. 보험은 사고 후에만 중요한 걸까요? 내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이 도와줄 수도 있나요?
6. 내 비즈니스는 가족의 생계이자 직원들의 미래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내 비즈니스와 직원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7. 오랜 시간 정성껏 키운 내 비즈니스를 떠나야 할 순간이 온다면, 내 가족과 직원들은 안전할까요?
8. 실수 한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내 사업장을 방문하다 다치거나, 직원이 실수로 큰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이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할때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1. 이 위치에 내 타겟 고객이 충분히 있을까요?
2. 임대료 외에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3. 주변에 경쟁 업체가 많은데, 이게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요?
4. 이 공간이 내 비즈니스에 적합한 구조와 크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5. 이 지역의 미래 가치나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타이틀 변호사, 융자, 보험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

세미나 출입 및 광고 내용 관련 안내

본 세미나는 등록된 참가자 전용 행사이며, 타 부동산 관계자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또한, 본 세미나에서 제공되는 광고 문구, 행사 내용, 강의 자료 등은 주최 측의 지적 재산이므로, 미디어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한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방문 입장권 신청서

입장권 신청서 1부당 1인 등록 가능

기존 “내집장만” 구독자 우대

현재 내집장만 구독자는 신청서에 구독 여부를 표시해 주세요.

버지니아

- **일 시**: 2025년 3월 15일 (토) 1-4pm
- **장 소**: 리얼티원 버지니아 세미나 / 회의실
7925 Jones Branch Dr #lower level, Tysons, VA 22102

메릴랜드

- **일 시**: 2025년 3월 22일 (토) 1-4pm
- **장 소**: 리얼티원 메릴랜드 세미나 / 회의실
10015 Old Columbia Rd, Columbia, MD 21046

<p>務實力行</p> <p>줄리엣 리 703.303.2737 juliet@DwellWashington.com 아무지고 딱부러지게</p>	<p>每事盡善</p> <p>이수경 410.979.7077 sarah@DwellWashington.com 차분하고 정확하게</p>	<p>寬仁厚德</p> <p>강상구 571.314.6222 sk@DwellWashington.com 조용하고 강하게</p>	<p>誠意正心</p> <p>엠마 리 571.634.1778 emma@DwellWashington.com 친절하고 상냥하게</p>	<p>滿腔血誠</p> <p>정필도 410.925.2040 kenny@DwellWashington.com 신용과 믿음이 전부입니다</p>	<p>敬事以信</p> <p>박주연 703.965.6844 jp@DwellWashington.com 따뜻하게 식구처럼</p>	<p>雪中雪白</p> <p>앤젤라 윤 571.375.9567 angela@DwellWashington.com 빈틈없이 성실하게</p>
--	--	--	--	--	---	---

<p>言行一致</p> <p>서동진 571.499.9843 jin@DwellWashington.com 끝까지 정성으로</p>	<p>首尾一貫</p> <p>제니 하 571.459.9237 Jenny@DwellWashington.com 두고 두고 후회없이</p>	<p>萬全之策</p> <p>승경호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원칙을 기본, 최고의 승부사</p>
---	--	--

부동산 청문회 등록 신청서 R.S.V.P.

“부동산 청문회”에 참석하실 분은 자리를 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_____

주소: _____

E-mail: _____ 전화번호: _____

내집장만 구독자이십니까? : 예 아니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진으로 찍으신 후, 703-928-5990에 Text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청문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봐야” ... 다시 좌회전 깜박이

민생연석회의서 20대 의제 발표 노란봉투법·주4일제 도입 등 중도 실용 아닌 친노조 정책 다수 이, 비명계와 함께 ‘윤 파면’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사람이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만 보는 것은 고집불통”이라고 말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한 말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대표 시절부

터 소상공인·노동자 등 약자 타깃 정책을 개발해 온 당내 기구다. 그간 사회적 ‘알’에 집중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이재명이 주창한 ‘중도 실용’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 전망도 적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3개 분과(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선정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는 공공복지 또는 친노조 공약 일색이었다. 1번 과제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이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였다.

이 대표가 지난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성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 여럿이었다. 보수 진영이 “기업 죽이는 법”으로 비판하는 ‘노

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논란을 부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도 포함됐다. 시중은행에 권고 형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할당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분쟁 시 국가가 중소기업의 증거 수집을 지원하는 방안 등 ‘반(反)시장’ 정책도 많았다.

반면에 노동계 요구는 대폭 반영했다. 고용보험을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에게 확대하고, 주4일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가임금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대표는 “최근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림 복지, 분배는 버린 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복지도 중요하다” 했더니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은색이 아니니까 흰색이겠지, 흰색이 아니면 바로 검은색이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냐”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논의해야 할 의제”라며 “(대선) 공약이나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에는 “대선 공약 빌드업”(재선 의원)이라는 평이다. 20대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정책총괄이었던 ‘숨은 편명’ 윤후덕(4선) 의원이 취임선정을 주도했다.

한편 전면적 장외투쟁 이틀째인 12일이 대표와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손을 맞잡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앞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의원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현재가) 국민적 상식과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결정이 어떻게 하겠냐”라며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현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탄핵을 촉구한 비명계 주자들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심새롬·김나한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윤상현 의원(왼쪽부터)이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당원들이 1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다.

여당 지도부, 강경투쟁 선 긋는데... 의원 60여명 “헌재 앞 시위할 것”

윤상현 등 24시간 릴레이 시위 시작 윤 탄핵 각하 탄원서도 82명 동참 안철수 “광장 아닌 국회로 돌아오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경 투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탄핵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헌재 앞에서 애국시민분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며 “사회적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디 귀를 기울여 달라”고 썼다. 강

승규 의원과 함께 전날 오후 2시부터 첫 시위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격려 방문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의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릴레이 시위 참석 의사를 밝힌 의원 숫자는 소속 의석(108명)의 과반인 62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저항권’에 관한 긴급 세미나도 열었다. 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전한길씨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전씨는 “(야당이)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내란 혐의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이) 감히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회 해산 사유”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탄핵을 각하해 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로 부르는 운동

을 벌여서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자”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지난달 ‘셰이브 코리아’의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선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형식적으론 투쟁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찾azzo도 안정, 둘째도 안정”을 강조하며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훈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서 “당 로고를 다는 순간 광장 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며 “지도부 입장은 (원내 투쟁과 집회를 구분하는) ‘투 트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솔직히 국민의힘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국민의힘 관계자)는 반응이 나온다. 의원 ‘개별 행동’으로 보기에 너무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런 식의 장외 실력 행사로 (판결을) 압박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 맞느냐”고 토로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3권분립에 반한다”며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성지원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라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메니슬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우메켄 효소환**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36가지 과일  27가지 야채  68가지 허브 및 해초  29가지 곡물과 버섯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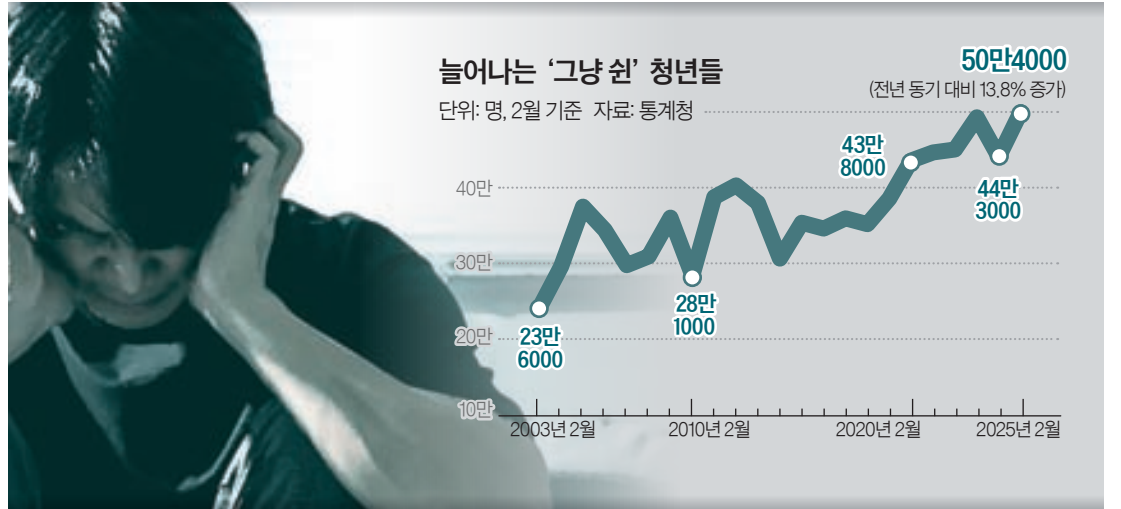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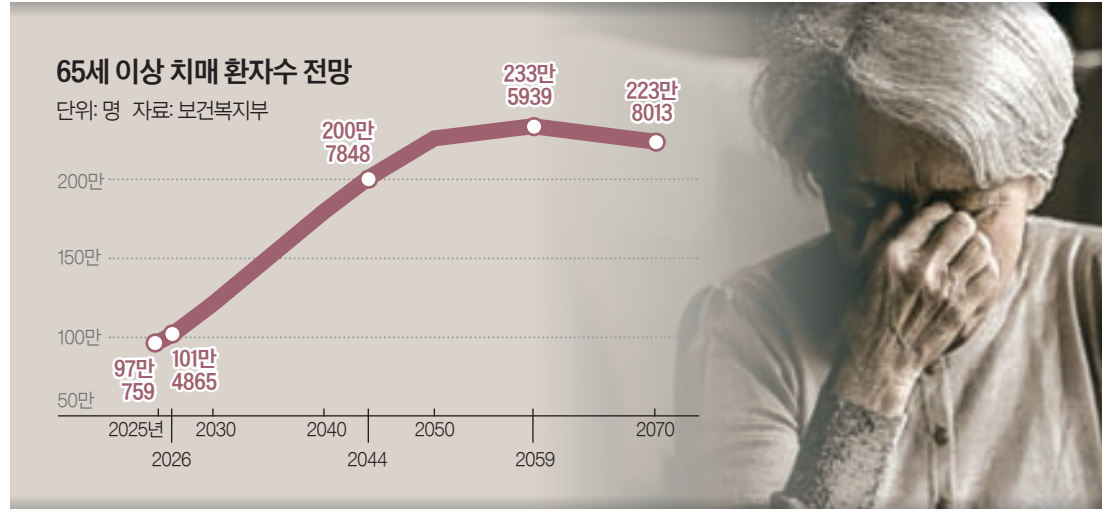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과체중이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고령화에...치매 내년 100만

올해 97만명, 2059년 234만 정점 전망
65세이상 10명 중 1명꼴 치매 많아
가족 절반 "돌봄 과정서 부담 느낀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가까이는 치매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유병률은 7년 새 소폭 줄었지만, 고령화를 타고 전체 환자 수가 내년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7년 만에 이뤄진 전국 단위 조사다.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보다 0.25%포인트 하락했다.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첫 감소세다. 치매 유병률은 고령, 여성, 농어촌 거주, 독거 가구,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높게 나왔다.

치매 환자 수는 올해 약 97만명으로 추정됐다. 내년엔 100만명, 2044년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늘긴 하지만, 2016년 조사에서 올해 환자를 108만명으로 내다본 것과 비교하면 기울기가 완만해졌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작용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가 노년에 진입하면서 이전 조사보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었다. 이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고, 음주·흡연 등 건강 행태도 개선된 게 환자 비율을 낮추는 데 영향 미쳤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치매정책기획팀장은 "치매 유병률은 2040년까

지 10% 내외로 유지되고, 환자 수는 2059년 정점(234만명)을 찍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치매 전 단계로 꼽히는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7년 새 6.17%포인트 늘었다.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남아 있지만, 기억력·언어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다. 올해 298만명으로 2033년 4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조기 진단이 많이 늘었고, 발생 시 예방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치매로의 진행이 늦춰진 영향"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실시된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만성질환은 지역사회(집) 거주 시 5.1개, 시설·병원 거주 시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2.2개)을 훌쩍 넘겼다. 우울 수준도 노인 평균의 두 배가량 높았다. 지역사회 거주 환자 가족의 절반 가까이(45.8%)는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환자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 거주 시 1733만9000원, 시설·병원 거주 시 313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병원 진료비·약값 같은 '보건의료비'보다 간병·교통 등에 쓰는 '돌봄비' 비중이 높았다. 임 노인정책관은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것으로 나온 만큼 장기요양 제가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중훈 기자

청년인데... '쉬었음' 첫 50만

(15~29세)
일 안하는 청년, 1년새 13.8% 급증
전체 고용률 61.7% 역대 2월 최고치
청년 고용률은 44.3% 4년만에 최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다는 청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집계한 2003년 1월 이후 5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이들은 육아나 학업, 취업 준비 등도 하지 않고 쉬고 있었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대돼 쉬었음 청년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기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2월(42.0%) 이후 동월 기준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3만5000명 감소했다. 2022년 11월부터 2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올라갔다. 2월 기준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공식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 추가로 일하길 원하는 단기 근로자 등을 더한 청년층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지난달 17.1%로 전년 동기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취업 장벽이 높아진 만큼 당장 취업 준비에 나서기보다 쉬면서 기다리는 청년이 많다. 전날(11일)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 3189명 가운데 가장 많은 38.1%가 쉬게 된 이유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지난달 전체 연령대로 보면 고용지표는 나아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2월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오르며 역시 2월 기준 가장 높았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3만6000명 증가했다. 2개월 연속 10만 명대 '플러스' 흐름이다.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등 덕분에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다.

다만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16만7000명 줄어들며 10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했다.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7만4000명 줄었다. 8개월 연속 하락세다.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는 6만5000명 적어졌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6000명 줄고 '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3000명 늘었다.

세종=김민중 기자

헌재, 오늘 최재해·이창수 탄핵 결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윤 탄핵심판 결론 전 선고, 결과 주목

감사원장과 감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일 발의돼 같은 달 5일 나라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달 12일, 감사 3인 탄핵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종결됐다. 법조계에서는 모두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감사원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 사유가 확정됐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김복형 재판관)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장 사건 변론에서는 "아직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김형두 재판관)는 언급이 있었다. 이날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

난 1월 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심판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4로 갈렸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재판관들의 견해가 선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반면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현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감사원장·감사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는 사건의 무게가 다르다. 재판관 의견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척도로서 전혀 기능할 수 없다"고 했다.

최서민 기자

"마스크 꼭" 오늘 황사까지 덮친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13일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충청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졌다. 황사의 영향은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중호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2030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 뚜렷... 무당층도 40%

김정하의 이슈 해부

논설위원



2022년 대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던 2030세대의 성별 정치성향 차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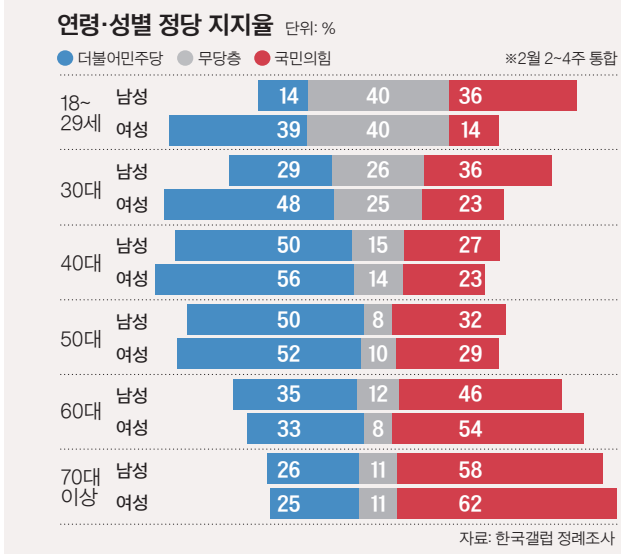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2030 여성은 전체 참가자의 27.1%를 차지했으나 2030 남성은 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서울시·KT의 생활인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반면에 1월 19일 타진 서부지법 난동사태에서 경찰은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중 2030세대가 46명(51.1%)이나 됐다.

경찰은 성별을 밝히진 않았으나 정황상 2030 체포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2030세대는 성별 성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 영역에선 2030세대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통칭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 가령 영남과 호남의 정치 성향이 확연히 다른데 둘을 묶어 남부권이라고 통칭하는 게 일기예보면 플라도 선거에선 유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40대 이상에선 성별에 따른 성향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2030세대의 성별 정치성향 분화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기존엔 정치 여론을 읽기 위해 주로 지역과 세대 변수를 눈여겨봤지만, 앞으로 성별을 빼놓고 판세를 얘기할 수 없게 됐다.

40대 이상은 남녀 성향 비슷

실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살펴보자. 현재 메이저 여론조사기관 중 연령·성별 데이터를 공개하는 곳은 한국갤럽이 유일하다. 한국갤럽 정례조사 2월 2~4주 통합 분석에서 정당지지도를 보면 18~29세 남성 더불어민주당 14% 국민의힘 36%, 18~29세 여성 민주당 39% 국민의힘 14%, 30대 남성 민주당 29% 국민의힘 36%, 30대 여성 민주당 48% 국민의힘 23%, 40대 남성 민주당 50% 국민의힘 27%, 40대 여성 민주당 56% 국민의힘 23%, 50대 남성 민주당 50% 국민의힘 32%, 50대 여성 민주당 52% 국민의힘 29%, 60대 남성 민주당 35% 국민의힘 46%, 60대 여성 민주당



33% 국민의힘 54%, 70대 이상 남성 민주당 26% 국민의힘 58%, 70대 이상 여성 민주당 25% 국민의힘 62%로 나타났다.

4050세대는 남녀 공히 민주당 우세, 60대 이상은 남녀 공히 국민의힘 우세가 뚜렷하다. 성별 수치 차이도 적다. 남녀가 비슷한 정치성향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30세대는 정반대다. 남성은 국민의힘 우세, 여성은 민주당 우세가 확인된다.

2030세대의 정치성향 분화는 2022년 대선을 계기로 수면 위에 부상했다.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를 보면 18~29세 남성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36.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8.7%, 18~29세 여성은 이재명 58% 윤석열 33.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30대 남성은 이재명 42.6% 윤석열 52.8%, 30대 여성은 이재명 49.7% 윤석열 43.8%였다. 반면에 다른 세대에선 두 후보의 지지율이 남녀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래픽 참조)

전통적으로 2030세대는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2022년 대선에서 2030 남성이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면서 파란을 몰고 왔다. 2030 남성의 보수화는 윤석열 후보의 0.7% 포인트 차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030 남성의 보수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 전 대표를 내치자 이에 반발한 2030 남성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내리막을 걷게 됐고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일각에선 이미 2017년 대선 때부터 20대 남성의 보수화 경향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선거 자체가 문재인 후보의 압승 무드여서 세대별 분석이 별 관심을 끌진 못했다. 하지만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다른 그룹에 비해 유독 20대 남성에서 문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30대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은 남성 '여성 우대'에 반감

2030세대에선 왜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분화가 발생했을까. 진주교대 김한나 교수는 "2030 남성은 같은 세대

의 여성이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우대'나 '성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민주당 정권이 실제로 얼마만큼 페미니즘 정책을 구현했는지와는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포지셔닝한 부분이 2030 남성에게 큰 반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듯하다가 막상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비위 사건이 터졌을 때 성범죄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2030 남성에게 진보에 대한 환멸을 부추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건 젊은 세대에선 남녀의 정치적 분화가 세계적 현상이란 점이다. 영국 가디언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18~29세 남성은 56%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고 42%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에 같은 세대의 여성은 58%가 해리스를 뽑았고 40%만 트럼프를 선택했다. 지난해 독일 총선에서도 18~24세 남성들이 가장 많은 지지(25%)를 보낸 정당은극우인 독일대안당(AfD)이었지만, 같은 세대의 여성들이 가장 많은 지

지(34%)를 보내는 정당은 극좌인 좌파당(Linke)이었다. 해외 매체들도 젊은 남성 사이에서 페미니즘적 가치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틱톡·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거론된다. 어렸을 적부터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만 접하다 보니 남녀 간의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은 한국 2030세대에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부분이다.

특히 한국은 징병제 때문에 외국보다 젠더 격차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윗세대와 달리 2030세대는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젊은 세대의 젠더 격차와 저출산 문제를 연결지며 "한국의 극단적 상황은 젊은 남녀가 갈라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단했다.

2030 무당파 많아 포섭 여지 커

정치권은 2030세대의 성별 분화에 대해 임시방편식 대응밖에 보여준 게 없다. 사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젠더 격차에 어떻게 접근할지 문제의식조차 희박해 보인다. 지난 대선 때 위기에 빠졌던 윤석열 후보는 갑자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공약이 2030 남성에게 큰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2030 여성의 반감을 초래해 전체적으로 윤 후보에게 득이 됐는지 모호하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젊은 여성 표심을 겨냥해 20대 여성활동가 박지현씨를 영입했다. 그러나 대선 뒤 이 대표와 박씨의 관계가 싸늘해지면서 결국 청년 정치인을 일회용으로 써먹고 토사구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직 두고 봐야 하지만 만약 올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2030세대의 성별 분화는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남녀가 정치 성향이 크게 다르긴 하지만 특정 정당 고정 지지층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18~29세는 남녀 똑같이 무당층이 40%나 되고, 30대도 남성 26% 여성 25%가 무당층이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무당층 비율이 2~3배나 높다.

각 정당이 하기에 따라 2030세대를 포섭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2030세대를 끌어안기 위해 여야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앞으로 눈여겨볼 대목이다.



1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2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난입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2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난입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4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건강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손이 '시려울' 수 없는 이유

'겨울'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노래가 있다. "손이 시려워 썩! 발이 시려워 썩! 겨울바람 때문에 썩! 썩! 썩!"으로 시작하는 '겨울바람'이라는 동요다.

이 동요 가사에서와 같이 많은 이가 "장갑을 끼는데도 손이 시려워 혼났다" "퇴근길에 버스를 오래 기다렸더니 발이 너무 시려웠다" 등처럼 '시렵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뭍의 한 부분이 찬 기운으로 인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차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시렵다'가 아닌 '시리다'가 바른 표현이다. 우리말에 '가렵다, 두렵다, 마렵다, 어렵다'와 같이 '~렵다'로 끝나는 말이 많다 보니 '시렵다'도 맞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시렵다'를 '시리다'의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렵고, 시렵도록, 시려워, 시렵지, 시려운, 시려우니, 시려우면, 시렵더라, 시려왔다' 등은 모두 '시렵다'를 활용한 표현이므로, '시리고, 시리도록, 시리어(시러), 시리지, 시린, 시리니, 시리면, 시리더라, 시리었다(시렀다)'와 같이 '시리다'를 활용한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한다.

따라서 위 예문 역시 "장갑을 끼는데도 손이 시리어 혼났다" "퇴근길에 버스를 오래 기다렸더니 발이 너무 시렸다"와 같이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세대교체 가로막는 세대 차이



임상환
OC취재담당·국장

한 일을 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이들은 패기와 도전 정신, 한인끼리 뭉쳐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인 사회를 위한 봉사에 나섰다. 이후 한인 단체 회원, 특히 단체장의 나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현재 많은 한인 단체의 중추 역할을 60~80대가 맡고 있다. "대다수 한인 단체들이 노인회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세대교체를 나이가 아니라 이민 1세대에서 1.5세, 2세로의 전환으로 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일부 직능 단체를 제외하면 한인 단체에서 이민 1세대와 젊은이들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단체가 한국어에 서툰 젊은 1.5세, 2세를 영입하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영어가 익숙한 젊은이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에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해 침묵을 지켜야 했다. 간혹 어른의 말씀에 토를 달면 버릇없다는 말을 듣기 십상인, 이른바 끈대 문화도 젊은이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느껴졌다.

1세대도 할 말은 있다. 1.5세, 2세를 바라보며 느끼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 온 한 1.5세 인사는 "1세대들은 투박해도 추진력이 있어 뭔가를 해낸다. 반면, 1.5세와 2세는 자신과 가족 외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관심사도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 머문다"며 1세의 시각에 동의했다.

결국 이민 1세로 구성된 단체의 세대교체를 세대 차이가 가로막는 형국이다. 박진방 OC 한인회 초대 회장은 이를 두고 "거의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는 처음 형성되고 35~40년쯤 지나 이민 1세대가 전면에서 퇴장하고 나면 급속히 미국화된다"고 늘 말해왔다. 그런 박 초대 회장도 한인 단체들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늘 역설해왔다. 맞는 말이다. 세대교체를 포기하면 한인 단체들의 명맥을 이을 길이 없다. OC 한인 사회 역사가 반세기 에 이르렀고 한인 단체들이 세대교체 방안을 고민한 지도 25년째다. 지금이 세대교체를 고민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언제까지 세대 차이가 세대교체를 가로막게 놓아둘 순 없다.

설립 목적에 따라선 세대교체가 필요 없는 단체들도 있다. 단, 세대교체가 절실한 단체라면 1세대들이 1.5세, 2세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무대 전면에서 물러나 뒤에서 지원한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세대 간 공존은 과정일 뿐이고, 애초 목적은 세대교체이지 않은가.

마켓나우

장기국채 금리 상승과 싸우는 트럼프



최정혁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

하는 대신 장기채권에 투자하게 하려면 장기채권의 금리가 단기채권 금리 경로에 대한 예상치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논리다. TP는 대체로 플러스지만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기준금리와 달리 TP는 중앙은행이 쉽게 통제할 수 없다. 기준금리의 결정권자는 중앙은행이지만 TP는 시장원리가 결정한다. 버뱅크 전 연준 의장의 연구에 따르면 TP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기국채의 수급과 물가의 불확실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장기국채의 순 공급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

이 커지면, TP가 상승해 장기국채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에도 10년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한 이유다.

연준이 채권 시장 분석에 사용하는 ACM 모형에 따르면 2020년 -1.4%까지 하락했던 10년 국채의 TP는 지난 1월 0.7%에 근접한 후, 현재 0.4%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 후 금리 변동은 TP에 의해 좌우됐으며, 10년 국채 금리 하락도 TP에 달려 있다. 수급 면에서 당장 공급이 감소하기 어렵다면 수요가 증가해야 가능하다.

특히 안전자산 차원에서 장기국채 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골드만삭스는 고물가로 인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상승하면서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정도가 약화되어 수요가 감소한 것이 TP가 상승한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결국, 재만등 조짐을 보이는 물가가 다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어야 국채 수요가 회복되면서 10년 국채 금리도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루짜리 기준금리에 집중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압박이 이제 10년 금리로 확장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금리 인하를 독촉하는데 그치지 않고 10년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직접 꺾겠다고 나섰다.

가계·기업의 자금 조달과 직결되는 10년 국채 금리의 상승은 트럼프가 원하는 경기 부양에 걸림돌이다. 그의 고금리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 지출을 삭감해 국채 발행을 줄이고, 원유·가스 등 에너지 생산을 늘려 물가를 잡는 것이다. 방향 설정은 맞지만, 실상은 모순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 의도대로 채권시장이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장기국채의 금리 결정 매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장기국채 금리는 미래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치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TP)으로 구성된다. 채권 만기까지 예상되는 기준금리 경로에 장기채권 투자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 TP가 더해진 것이다. 투자자가 단기채권에 투자한 후 만기가 될 때마다 단기채권에 재투자하는 안전한 선택을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가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성공한 노무현, 실패한 노무현(21) 첫 시련 이라크 전쟁

노 “대통령은 반미 하면 안되나” 했지만... 이라크 파병 결단

‘이라크 파병→하기 싫은 일→안 할 수 없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노무현의 기술을 받아준 메모다. 실제로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파병 결정을 내렸다. 심각한 내홍을 겪어야 했다.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되자 많은 노무현 지지자가 실망하고 대거 이탈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라는 말이 당시 그에게 개혁과 변화를 기대했던 진보 진영에서 한동안 회자됐다.

노무현으로서는 첫 번째 시련이자,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가를 절감했던 일이었다. “대통령은 반미 하면 안 되느냐”는 결기를 보였던 노무현 아닌가. 그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반미 아닌 친미의 결정을 요구받게 될 줄이야.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 한국 군대 파병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이다.

2003년 3월 20일 새벽, 미국을 위시한 영국·프랑스 등 다국적군은 후세인 제거를 목적으로 3000여 발의 미사일을 이라크 바그다드에 퍼부었다. 일각에선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벌이는 ‘더러운 침략 전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아무튼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을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온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던 미국은 이미 김대중 정부에 한국의 참전을 요청했고, 여기에 김대중도 대충 ‘미국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져 파병 결정을 떠안은 것은 출범 한 달밖에 안 된 노무현의 참여정부였다. 미국의 공격 시작 일주일 전, 한밤중에 노무현은 미국 대통령 부시로부터 예정이 없던 전화를 받는다. 방미 초청과 북핵 문제 등 15분간의 통화였는데, 핵심은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 파병 요구였다.

“부시 대통령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및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한 지도력을 항상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합니다. 이라크 문제에 대해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해 미국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밤중 부시와의 긴급 통화

파병을 피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다. 반전 여론이 빠르게 번졌다. 그 중심에 참여 정부 지지자들이 서 있었다. 진보 쪽의 시민단체들은 죄다 “침략 전쟁에 가담하면 안 된다”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2003년 4월 28일 특수전사령부에서 서희(건설 공병·제마(의료) 부대의 이라크 파병 행사가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다. [중앙포토]

아했다. 비전투 요원인 공병부대 위주라고 국민 홍보에 나섰으나 반대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내부 표결을 거쳐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정책 결정에까지 인권위가 시비하고 나선 것이다.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노무현 자신이니 말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참모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렸다. 청와대의 외교·국방·안보 라인 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병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반면에 민정·정무 라인 은 대체로 파병에 부정적이었다. 민정수석 문재인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파병했다가 희생 장병이 생기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참전 불가론에 앞장섰다. 그나마 정치권에선 대체로 미국의 파병 요청 수용을 이해하는 분위 기였다.

밤잠 설치게 한 파병 문제

노무현은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의전비서관이었던 서갑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들은 거의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들은 노 대통령에 그냥 내질러버리기(파 병 거부)를 원했고요. 원래 노무현의 모습 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죠. 반면 외부 자문 인사들은 대부분은 파병을 권했 어요.”

결국 국무회의를 거쳐 공병부대 위 주의 비전투병 파병이 정부안으로 결정 됐다. 국회 표결에 앞서 노무현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 결정

부시 대통령 직접 파병 요청 전화 지지층 극렬 반대에도 실의 태해 “잘못된 정책” 퇴임 후 선택 후회

의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를 호소했다. 2003년 4월 초 국회에서 파병안이 최종 통과됐다. 건설공병단(서희부대)과 의료지원단(제마부대) 등 675명의 비전투병으로 구성된 이라크 1차 파병은 이 령게 마무리됐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 었다. 노무현의 임기 내내 그를 괴롭혔 다. 1차 파병이 마무리된 후 몇 달 지나 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추가 파병 요청 이 들어왔다. 그해 6월 중순 부시 정부 내 매파로 알려진 리처드 로리스 국방 부 부차관보가 반기문 외교안보 보좌관 에게 추가 파병 가능 여부를 비공식적 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에는 사단급 규모의 전투병 요청 이었다. 미국 측은 “가급적 최대 1만 명 규모의 전투병을 보내 달라”고 했다. 국 내의 술한 반대를 무릅쓰고 소규모 비 전투병 파병을 겨우 설득했는데, 이번 에는 대규모 전투병 파병이러니.

또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개인 노무현의 생각은 당연히 ‘파병 불가’였 다. 그러나 대통령 아나가,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1차 파병 때 와는 파병 규모나 성격이 판이했기 때 문이었다.

반발의 강도도 이전보다 훨씬 컸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 고 국론은 분열됐다. 수많은 시민단체 가 ‘파병 반대 국민운동’을 결성했다. 대

선 당시 대부분 노무현의 지지층이었던 이들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라” 며 “대통령이 추가 파병을 결정하면 지 지를 철회하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 겠다”는 협박성 주장까지 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반전 시위가 점점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전투병 위주의 추가 파병 은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어 갔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파병 규 모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는 등 갈등 양 상까지 보였다. 노무현을 보좌하는 국 가안전보장회의(NSC) 측에서는 파병 규모가 너무 커지면 국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NSC 측 에서는 여론을 떠보기 위해 2000~3000 명 선 파병을 안론에 슬쩍 흘렸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본 조영길 국방장 관은 “누가 그런 소릴 하더냐”고 반문하 며 일축했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도 “파 병 규모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 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일 뿐”이라고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측은 “적어도 전투병 5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까지 파병해야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 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노무현의 고민 은 깊어졌다. 우선 현지 사정을 면밀히 알아봐야 했다. 국방부, 외교부, 민간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해 조사 활동을 벌 였다. 하지만 조사단 내부조차 평가가 엇갈려 논란만 커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무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는 NSC 사 무차장 이종석이었다. 이종석은 추가 파병은 받아들여더라도 외교부나 국방 부가 주장하는 큰 규모의 파병은 무리 라는 입장이었다. 그는 명분과 현실 사 이에서 현실론을 택할 수밖에 없는 노 무현의 고민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이 종석의 증언이다.

“한-미 동맹의 특수성,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협조 등을 감안했 을 때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는 받아들 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노 대통령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통적 지 지층의 반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은 컸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는 지 한 달 여가 지나서 3000명의 추가 파병을 결 심했다.”

다만 추가 파병은 하되 비전투적인 재건 업무를 맡기자는 쪽으로 정리됐 다는 것이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노 무현이 결심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한

외국 정상의 조언도 한몫했다. 노무현 은 이라크 파병이 자칫 이슬람권 국가 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염려했다. 노무현은 뜻 밖의 곳에서 답을 얻었다. 2003년 11월, 노무현은 한국을 방문한 파키스탄 대 통령 무사라프에게 이라크 파병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 응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이슬람권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단, 현지에서 한국군이 재건 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이라크인의 마음 을 살 수 있습니다. 파병 지역은 이라 크 중부나 남부보다는 북부 쿠르드 지 방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쪽 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투병 요청’ 미국 설득, 재건부대 파병

미국을 설득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 다. 양국 간 밀당이 시작됐다. 협상단이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미국 측은 한국 이 제시하는 3000명 파병이 너무 적다 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협상단은 국내 여론을 내세워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 다. 어렵사리 백악관을 설득하는 데 성 공했다.

이듬해 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라크 재건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투병 30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파병한 부대가 바로 ‘자이툰’이 다.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북부 에르빌 에서 재건·의료·교량 복구 등의 임무를 맡았다.

자이툰 파병 부대원들은 6개월씩 교 대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낸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으나 베트남 전쟁과는 전혀 달랐다. 파병 전 4주 간 특전사 훈련장에서 ‘박스’ 전투병 훈 련을 거쳐 파병했으나 현지 병영근무는 전투와는 거리가 먼 안전지대에서의 평 화유지군 수준에 불과했다. 4년이 넘는 파병 기간에 전사자는 단 한 명도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퇴임 하고 나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을 후회 했다. 자신의 문화적 코드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여겼던 탓일까.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 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때로는 뻔 히 알면서도 오류의 기록을 역사에 남 겨야 하는 대통령 자리,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다.”(『운명이다』)

이장규·손병수·고성표·박유미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들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한지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시 설

상속세 대수술, 증산층 경감 환영하나 세수 보완은 과제

기획재정부가 어제 증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핵심은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을 받는 사람에게 각각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변경이다.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이다. 증여세처럼 '내가 받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형평에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상속세를 내는 24개국 중에서도 유산세 방식을 쓰는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밖에 없는 점도 고려됐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자산 전체에 누진 과세해 세 부담이 과중했으나,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각자 받은 만큼만 과표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이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두 자녀가 20억원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지금까지 1억3000만원가량 내던 상속세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나선 것은 집 한 채 있는 증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2000년 0.48%였던 국제 수입 중 상속세 비중은 2023년 2.48%로 약 5배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끝없는 정쟁이 변수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거의 모든 민생 현안에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도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자"면서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자고 하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이날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선 "유산취득세는 부자 감세" "집 수리 하러는 데 재건축 발표한 꼴"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여야가 증산층 세 부담이라는 대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 2023~2024년 총 87조원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비어 간다는 사실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증산층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당장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매년 2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세수 부족이 계속된다면 상속세 경감도 지속하기 어렵다. 소득 재분배와 세수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이 받는 만큼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
세수 매년 2조원 감소... 세수 증대 방안 고민해야**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 법원은 "상급심 판단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종전처럼 '날'로 계산하라"는 지시를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이 구속기한을 9시간 이상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에 의문이 있는데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없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룰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보석 허가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이를 무력화하는 즉시항고는 위험이라는 선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런 기준이 다른 피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앞으로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겠다는 모르되, 기존대로 날수로 계산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처사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검찰이 과연 이런 판단을 내렸을

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최선이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천대업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저희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 처리 여부는 그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를 법원이 권한이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에선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검찰은 보통항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 처장의 말대로라면 윤 대통령 석방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는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가 지정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내란 혐의 재판엔 큰 변수가 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에 대해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문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은 앞뒤 안 맞는 지시로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형사절차적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고일부터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호식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지금 대한민국은 '실패한 계몽 군주'에 대한 단죄를 앞두고 있다. 계몽 군주란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국민에게 반국가 종북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던 것"이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12·3 비상계엄 해명에서 따온 것이지만,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이란 평가도 담겼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방식이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과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등 수사 와 재판 전 과정을 포함한다. 적법 절차는 모든 국민이 언제나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할 헌법의 대원칙이지만, 이번은 내란죄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이라서 더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 내란죄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7쪽짜리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검찰의 1월 26일 구속 기소는 10일간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져 구속은 적법하지 않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를 보낸 기간(1월 17일 17시46분~1월 19일 2시53분)을 '날'(일수, 윤 대통령의 경우 3일)로 계산한 종전 해석을 뒤집고 정확한 시간(33시간7분)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다. 날로 계산할 경우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로 인해 오히려 신체의 자유가 더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만 문제삼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이 윤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공수처와 검찰 간 구속기간의 배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다. 결국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1심 재판부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기소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고 본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단죄는 형사소추 외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역시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보름이 넘도록 평의를 열고 있다. 8명의 재판관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14일 기록을 깨고 최장기 속의를 거듭했지만, 선고일도 정하지 못했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탄핵 결정은 그만큼 엄중하다는 방증이다.

인류는 고대 민주주의 시절부터 수많은 결정 방식을 고안해 왔다. 하지만 단순 양자택일이 아니라 3개 이상 선택지

**내란 재판 시작 전 '적법 절차' 논란
현재 '최장기 속의' 선고일 못 정해
"가장 나쁜 결정은 시간만 끄는 것"**

가 있을 경우,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투표 방식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다(케네스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 개인마다 욕망하는 대안의 선호 순서가 다르고, 서로 순환하기 때문에 어떤 투표 방식으로도 집단이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당수는 자신과 집단에 해로운 비합리적 결정도 서슴지 않는다는 게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탄핵심판도 윤 대통령 파면 여부라는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4개월간 끌어 온 국가적 불확실성의 해소, 두 달 뒤 조기 대선 실시란 선택지와 결부돼 있다. 헌법이 이 무거운 결정을 일반 국민투표가 아니라 평생 법관 경력 가진 현자들에게 맡긴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결정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일이다. 결론에 앞서 선고 기일부터 먼저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부장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888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주)세진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NHK, NHK, NHK, NHK)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고품격 고국일주 1차 4차리 4박5일
 4/15-4/25 10박11일 \$2990+항공

정통 서유럽
 4/23-5/3 10박11일 \$3590+항공

정통 동유럽 4차리 4박5일
 4/30-5/6 6박7일 \$2790+항공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4차리 4박5일
 4/30-5/13 13박14일 \$45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5/6-5/16 10박11일 \$2990+항공

발칸 크로아티아 4차리 4박5일
 5/5-5/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4차리 4박5일
 5/13-5/23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5/20-5/30 10박11일 \$3590+항공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 4차리 4박5일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캐나다 록키 4차리 4박5일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6/28-7/5 7박8일 \$2990+항공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6/30-7/3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8/02-8/15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8/21-8/31 10박11일 \$2990+항공/오션뷰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7박8일
 \$2190(항공/인사이드) \$2590(항공/기어린 발코니)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6 6박7일 \$27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5-10/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지중해 크루즈 10/17-10/26 9박10일
 \$2990+항공 부타-인사이드
 \$3490+항공 부타-오션뷰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30 9박10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티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7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일본 크루즈 11/3-11/14
 11박12일 \$2490+항공 부타-인사이드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사해산)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아태리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고국일주

32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고국 방문의 명가 탑여행사가 모십니다.

1차 04/15~04/25 4차리 4박5일
 10박11일 | \$2990+항공

2차 06/17~06/27 4차리 4박5일
 10박11일 | \$2990+항공

3세대 투어
 영어&한국어가이드

3세대 투어: 1세대, 2세대 자녀, 3세대 손자/손녀와 모국 관광·일본 여행을 계획 하시면 탑여행사에서 보장하여 맞춰드립니다.

고국여행과 일본여행을 한번에!!

3차	4차	5차	6차
09/16~09/26 10박11일 \$2990+항공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	+	+	+
오사카 13박4일 9/27-9/30 실숙 \$1299+항공 디럭스 \$1799+항공	동경 13박4일 10/25-10/28 실숙 \$1299+항공 디럭스 \$1799+항공	일본크루즈 11박12일 11/3-11/14 인사이드 \$2490+항공 부타- 오션뷰 \$2720+항공 부타- 발코니 \$3160+항공 부타-	동경&오사카 15박6일 11/8-11/13 실숙 \$1999+항공 디럭스 \$2699+항공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
 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여행지 서울/전주/담양/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정동진/강릉/속초/제주(옵션)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 일반뷰와 \$170차이	소노캄 여수 일반뷰와 \$170차이	소노캄 거제 일반뷰와 \$170차이	그랜드 조선 부산 일반뷰와 \$180차이
업그레이드! 패키지여행 최초 계약 체결 동대문 노보텔과 \$240 차이	라한셀렉트 경주 일반뷰와 \$180차이	롯데리조트 속초 일반뷰와 \$180차이	롯데호텔 제주 일반뷰와 \$250차이

Together in Korea (2인 이상 출발 보장)

6박 7일 내륙 한글 Tour \$1499+항공 영어 Tour \$1699+항공	2박 3일 제주도 한글 Tour \$549+항공 영어 Tour \$749+항공	3박 4일 동경 \$1149+항공
3박 4일 서남권 한글 Tour \$829+항공 영어 Tour \$929+항공	6박 7일 제주+동해 한글 Tour \$1549+항공 영어 Tour \$1879+항공	3박 4일 오사카 \$1149+항공
4박 5일 동해안 한글 Tour \$989+항공 영어 Tour \$111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한글 Tour \$2199+항공 영어 Tour \$2599+항공	5박 6일 동경&오사카 \$1899+항공

TMCI 고국 건강검진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 여 \$1660
-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 세브란스(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산병원 | 서울대병원 | 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나트랑/달랏	대안	싱가폴
대한항공 한국경영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3박 5일 \$4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왓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벌바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 배워궁, 태국 특산물	3박 5일 \$6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명요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아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본내원고, 켄가사당, 풍종의집 광조화관, 바-힐 국립공원 후해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5일 \$45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롱탄아트 갤러리, 나트랑대성당 야시장, 세일링 클럽, 혼츄 포카르 사원, 아이리조트 스파 달랏 야시장, 달랏대성당 바오다이 1 궁전, 린푸옥 사원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공작박물관, 자오공, 101빌딩 리오하계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안 국립공원, 자우루거리	3박 5일 \$85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거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랜드, 핸드스 웨이 브릿지, 하지리엔, 부기스재래시장, 메라이언공원, 차이니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성극 노아
 +아미쉬마켓 당일

출발: 3/20, 4/3, 4/10
 5/1, 5/8, 5/15

\$199

당일 투어
체리 브로섬 런치 크루즈
 3/27, 4/2 **\$189**

벚꽃길 투어 3/28, 4/3, 4/4 **\$45**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 동계시즌 출발 보장 * 당일관광 (수요일만 출발 가능)

미동부 5박 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플라츠버그/뉴욕 로 맨티시티 겨울 낭만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뉴욕/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대자연의 아름다운 설경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선(옵션)	뉴욕 1박 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대시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산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7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마운트 레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5/23, 7/4, 8/29)	탑여행사 TOP TRAVEL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MAR. 13th - MAR. 20th, 2025

따뜻하고 노곤노곤한 핑그러운 봄에
~~입맛을 훔치는~~

밥도둑 잡아라!

CATCH THE ULTIMATE RICE THIEF FOR A FRESH SPRING FEAST



청아굿푸드
어리굴젓
Seasoned Oyster (Eoliguljeot)

~~\$17.99~~ **\$12.99**
400 G



청아굿푸드
굴무침
Seasoned Oyster (Gulmuchim)

~~\$19.99~~ **\$14.99**
400 G



청아굿푸드
간장새우
Soy Sauce Marinated Shrimp

~~\$12.99~~ **\$9.99**
400 G

고구마의 달콤한 풍미 가득!

말랑말랑하고
쫄득하게 씹히는~
고구마 스틱
Sweet Potato Stick

~~\$29.99~~ **\$19.99**
25X20 G



판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54

Sterling, VA
30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6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855 Metrolo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204 Park Royal Plz,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2835 Farmstead Plaza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900 Lee Street
Herndon, VA 20170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Catonsville, MD
69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27 Lee'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March 13,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경험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담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부동산 거래에서도 AI 사용 증가

AI가 에이전트의 업무

부동산 거래에서도 인공지능(AI) 바람이 불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기반 부동산 중개회사를 넘어 AI 기반 플랫폼이 등장하고 에이전트의 업무를 지원하는 AI 앱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AI가 에이전트의 업무를 돕는 개인 비서나 어시스턴트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에이전트들의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앱 출시가 늘면서 AI가 어디까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주거용 건물 중개 컨설팅회사 'T3 식스티(T3 Sixty)'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에이전트 업무의 80%까지 담당할 수 있다. T3는 AI가 고객 서비스부터 자산 평가, 모기지, 시장 분석, 법률적 고려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거래에서 AI의 역할이 넓어지면서 에이전트와 브로커 대상 설문조사에서 AI에 대한 우려하는 비율은 지난해 50.4%에서 올해 42.2%를 기록해 50% 아래로 떨어졌다.

설문조사서 에이전트 전 연령층으로 확산 사람 대체 못하지만 업무 80%까지 지원 예상

에이전트의 어시스턴트로 개발된 대화형 AI인 '하우스위스퍼(House Whisper)'는 24시간 전화와 문자로 고객과 스케줄 관리를 대신한다. 하우스위스퍼의 루이스 포기 최고경영자(CEO)는 AI를 사용하는 에이전트는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기 CEO는 4000명의 에이전트가 하우스위스퍼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에이전트용 AI 앱인 '하우스캐너리(HouseCanary)'는 사용자들에게 매물의 밸류를 알려주고 비슷한 매물을 찾아주는 기능을 넘어 어떤 집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도 파악해 준다. 시장 트렌드 예측과 매물 판매 가능성 같은 고급 기능까지 가능하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I 플랫폼 부동산 중개회사 '리얼 브로커리지(Real Brokerage)'은 자체 AI '리오(Leo)'를 에이전트 대시보드에 통합했다. '리오'는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동안 AI에게 지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 수도 있다. 리얼브로커리지는 지난해에만 에이전트 1만명이 신규 가입했으며 모두 12만601건의 거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AI 기반 부동산 플랫폼인 '홈자다(HomeZada)'는 주택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의 유지와 보수, 리모델링 프로젝트 추천, 판매와 모기지 관련 정보, 보험과 재산세에 관해서도 알려준다.

부동산 기술회사 '로프티(Lofty)'는 올해 AI 코파일럿을 자사의 고객관계관리(CRM)에 통합해 일정 관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AI가 기존의 프로그램에 접목돼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부동산 관련 테크놀로지회사 델타미디어그룹이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에이전트와 브로커는 부동산 거래에서 올해는 AI 접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문조사서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대 브로커들은 부

동산 업계에서 AI의 중요성을 10 기준에 5.9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5.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미래의 AI 중요성에 대해서는 7.2로 예상해 지금보다 22%나 높게 예상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남성의 87%, 여성의 82.6%가 AI를 사용한다고 답해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 조사 대상의 48%가 60세 이상인 것은 고려하면 AI 사용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매물 설명이었다. AI 사용이 증가하는 분야는 디지털 마케팅과 고객과 소통, 데이터 분석, 행정업무 자동화였다.

델타미디어그룹의 설문조사서에서 AI에 대한 우려는 2024년 50.4%에서 올해 42.2%로 떨어졌다. AI가 에이전트라는 직업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효율성을 높인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많은 전문가들은 AI가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에이전트를 대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은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과 소통하면서 감성적인 면까지 살피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AI가 대체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전문가들은 AI가 여전히 프로그래밍이 된 만큼만 똑똑하다고 강조한다.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거나 고객과 소통까지 맡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주의점은 AI의 기능은 유용하지만 AI가 주는 시장의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에이전트와 전문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NEWSTAR 1st Realty
일등부동산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5주 숙성반
부동산 학교
수업료: \$250 (교재비: \$100)
88기 4월 15일 (화) 개강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품질계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기본 컴퓨터 교육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관람 오시면 100% 합격보장!!

OPEN HOUSE
이번주 토요일 오후 1시 ~ 4시
26977 Crusher Dr. Chantilly, VA 20152
\$1,500,000
6600 sqft의 고급집, 모델하우스, 집 뒷편으로 아주 넓은 호수, 모델하우스보다 더 모범 홈 같은 집

OPEN HOUSE
이번주 토요일 오후 10시 ~ 12시
7703 Lafayette Forest Dr. #22, Annandale, VA 22003
\$369,900
에든필드에 있는 고급 콘도. 집 전체 완전하다 새것으로 수리. 방2, 화장실2

버지니아

1 \$1,900,000 퍼어팩스 새 싱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민통이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 집	2 \$2,300,000 옥튼 새 싱글 방 5, 화장실 4+1, 차고 2 1.8 에이커의 넓은 땅에 지어진 새 집, 옥튼 HS	3 \$2,200,000 맥클린 싱글 방 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 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린 HS
--	--	---

메릴랜드 DC

1 \$1,025,000 N. Potomac 싱글홀 방 5, 화장실 3+2, 차고 2 고급스러운 벽돌집, 넓은 부엌, 마루바닥	2 \$1,325,000 포토맥 싱글홀 방 4, 화장실 3+1, 차고 2, 좋은 위치에 있는 고급 주택, 넓고 고급스러운 부엌, 넓은 테라스	1 \$1,150,000 워싱턴 디씨 NW 타운홀 방 4, 화장실 3+1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고급 타운 하우스
--	---	--

투자자 이탈에 주택 현금 구매 감소

작년 32.6%... 3년 내 최저치
고금리로 채권·CD 투자 몰려
올해 플리핑 매물로 증가 추세

주택 구매 중 현금 거래 비율이 지난해 32.6%로 감소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의 35.1%에서 하락한 수치로 팬데믹 이전(25~30%)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레드핀이 201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도시 지역의 카운티별 주택 거래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 중 현금 구매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현금 구매 비율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금 구매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주택 판매량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레드핀의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현금 구매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북가주 샌호세로 18.1%에 불과했다. 이어 이어 오를랜드(18.6%), 시애틀(20.6%), 버지니아 비치(21.9%), LA(22.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현금 구매율이 22.3%로 주요 대도시 중 비교적 낮았지만 1년 새



0.2% 소폭 상승했다. 이런 상승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LA카운티와 OC지역에

서 현금 주택 구매자가 느는 추세다.

한인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다시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현금 구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흥 남가주 한인 부동산협회 회장은 “모기지 이자 상승으로 한동안 현금을 안전한 은행 채권이나 CD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부동산 매물을 찾고 있다”며 “그만큼 현금 구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플리핑하는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리면서 매물 상태보다 리스팅 가격이 좋은 경우 오히려 40~50개까지 몰리고 있다. 플리핑은 낮은 가격에 매물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거친 후 단시간에 매물을 현재 시장 가격에 맞춰 판

매하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풀 캐시 오피는 물론 이자가 10% 가까운 하드머니 오피까지 들어오면서 매물이 빠르게 10일 안에 판매되고 있다. 케이 박 드림부동산 에이전트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플리핑 투자자들이 몰리는 추세”라며 “현금에 여유가 있는 주택구매자도 모기지 이자가 높아 풀캐시 오피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금 구매가 가능한 부유층의 부동산 시장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금 구매 비율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작다. 한편, 현금 구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플로리다로 나타났다. 이은영 기자

서초구 아파트값 1년새 7억 상승... 강남·강북 더 벌어졌다

서울 집값 양극화
토지거래허가 해제, 강남 과열 조짐
1~2월 강남 3구 실거래가는 24억
나머지 22개구 평균 가격은 10억대
집값 격차 1년전에 비해 2억 늘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이 1년 새 7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비싼 강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르며 서울 내에서 ‘하우스 마태효과(Mattew Effect, 부익부 빈익빈)’는 더 심화했다.

12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초구 평균 실거래가는 28억490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억9516만원(32.3%) 상승했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

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매매 7231건을 지난해 1~2월과 비교·분석한 결과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초구는 거래량이 87% 늘고 고가의 대형 면적 거래가 많았다”며 “그만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강남구(27억1065만원)와 송파구(18억971만원)는 같은 기간 각각 15.5%·12% 상승했다.

다른 서울 지역과의 격차도 심화했다. 지난 1~2월 강남 3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23억8118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억7619만원(18.8%) 뛰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22개 자치구 평균 실거래가는 10억1103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3766만원(15.8%) 올랐다.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집값 차이는 지난해 1~2월 11억3152만원에서 올해는 13억7015만원으로 벌어졌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평균가격

단위: 원 *올 1~2월 실거래가 기준

서초	28억4909만
강남	27억1065만
용산	21억9603만
송파	18억971만
...	...
금천	6억18만
노원	5억9850만
강북	5억8272만

자료: 국토부

여기에 지난달 서울시가 ‘잠삼대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해제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인다. 하우스 마태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68% 오르며 7

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남구(0.52%)와 송파구(0.49%)도 상승 폭이 확대되며 서울 내 상승률 2·3위를 차지했다.

다만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측은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불씨가 주변으로 번질지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강남 집권성이 좋은 지역들이 강남발 상승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정부가 추가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

울시장은 지난 10일 ‘토허제 해제 이후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월 전 금융원 가계대출 잔액은 1672조원으로 전월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 1월, 10개월 만에 9000억원 감소했는데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2월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9조7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크다.

금융당국은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추세인 데다 토허제 해제가 대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금리 수준이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유의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윤·김경희 기자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 7185만원... 지니계수도 집계 이래 최저

(소득불평등 지표)

고금리 영향 재산소득 28% 늘어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최고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가 집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관련 수치가 낮을수록 평등에 가깝다는 뜻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면서 “다만,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빛이 바랬다”고 말했다.

9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23으로 전년보다 0.001포인트 감소하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2011년 수치)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른 소득 불평등 지표도 마찬가지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지난해 5.72배로 전년보다 0.04배포인트 떨어졌다. 이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

부의 지속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덕분에 풀이된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도 역대 최대 폭(증가율 기준)으로 증가했다. 7185만원으로 전년보다 6.3% 불었다. 고용이 호조를 보이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고금리의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28% 넘게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가구의 비소비지출(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료 등)은 1321만원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가계당 평균 처분가능소

득은 5864만원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구 부채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부채는 증가했지만, 가구 수가 늘면서 평균치를 내렸다. 빚내기를 꺼리는 60대 이상(가구주 기준) 가구 비중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긍정적인 통계 뒤엔 그늘도 있다. 39세 이하 가구당 평균 소득(6664만원)은 1.1% 오르는 데 그

쳤다. 2015년(1%)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비교적 소득이 적은 1인 가구의 증가세가 30대 이하를 중심으로 이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억2158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했다. 최근 수년간 2030세대 상당수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뜻의 속어)로 집을 샀는데, 이들이 선택한 주택의 가격이 집중적으로 떨어진 탓이다.

세종=김민중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1.2 M

Comer Lot
Many Upgraded

웃브리지 타운홈



\$495,000

방3, 화3.5
Lake Ridge 커뮤니티

페어팩스 타운홈



\$3,600

방4, 화3.5, 조지메이슨대학 근처
Very Good 컨디션

COMING SOON
리스팅

굿 로케이션
집 수리중입니다.

- * Annandale 싱글홈 \$890,000
- ** Springfield 싱글홈 \$800,000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고대 성경 '사해 두루마리' 레이건 도서관 전시

두루마리 8개·유물 200여점 최대 규모 제2 성전시대 영적·문화적 풍경 담겨있어

20세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인 '사해 두루마리(Dead Sea Scrolls)'가 1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 시미벨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9월 2일까지 열리는 '사해 두루마리: 전시회'는 두루마리 발견 75주년 기념해 마련됐으며 이스라엘 이외 지역에서 열린 전시 중 최대 규모다. 전시회에서는 원본 두루마리 8개와 갈릴리 해에서 발견된 1세기 배의 조각 등 200여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사해 두루마리'는 1947년 유대 사막에서 베두인 목동이 우연히 발견했다. 이후 쿠란 고대 유적지 인근에 있는 동굴 11개에서 두루마리가 연속으로 나왔으며 10년간 2000년 전의 고대 사본 조각 수천 개가 발굴됐다.

건조한 기후와 동굴의 어둠 속에서 보존된 양피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사본과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교적 저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루마리는 제2성전 시대(BC 516년~AD 70년)의 영적, 문화적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다.

전시회의 주요 전시물 중 하나인 '대 시편 두루마리(Great Psalms Scroll)' 조각은 1세기경의 히브리어로 작성되었다. 쿠란 동굴에서 발견된 36개의 시편 사본 중 가장 크고 잘 보존된 원고다. 이 두루마리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몇몇 시편이 담겨 있다. 전시 중인 두 시편은 다윗 왕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는 그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를 시편의 저자로 묘사한다. 다른 하나는 일인칭 시점에서 다윗의 삶과 자해를 설명하고 있다.

두루마리는 매우 민감해 5년에 단 3개월만 빛에 노출될 수 있다. 보존의 우선순위를 존중하기 위해 전시회가 9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큐레이터들은 3개월마다 새로운 두루마리를 선보이고 있다.

24개의 다양한 사해 두루마리 조각 외에도, 전시회에서는 약 200점에 이르는 이스라엘 유물 관리국의 '국보' 유물이 전시된다. 이 중에는 갈릴리해의 북서쪽 해안에서 가뭄이 극심했던 1986년 발견된 1세기 여인의 실제 목재 조각을 포함하여 복원된 '예수의 배'로 불리는 갈릴리 해 보트의 복제본도



이스라엘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사해 두루마리' 전시회가 레이건 도서관에서 9월 2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사해 두루마리의 일부.

있다. 이 복제본은 길이 27피트, 폭 7.5피트다.

마그달라 돌(Magdala Stone)도 전시되는데 성전과 성전 등잔대(메노라)의 가장 오래된 회당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 돌의 뛰어난 조각은 기원후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기 전, 회당이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전시회의 또 다른 주요 전시물인 서쪽벽(Western Wall)의 일부는 방문객들이 기도하고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상징적인 벽은 헤롯 왕에 의해 성전 산의 서쪽 측면에 세워졌다.

레이건 재단의 펠리사 길러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특히 이 유물이 기원한 지역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전시회는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 모두에 신성한 시간대를 연결해 주는 구체적인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고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유물들은 발굴과 보존을 규제하는 이스라엘의 독립 정부 기관인 이스라엘 유물 관리국(IAA)의 큐레이터들에 의해 옮겨졌다. 이스라엘 유물 관리국의 조 우지엘 사해 두루마리 부서장은 "고고학을 사랑한다면 사해 두루마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두루마리는 2000

년 전 사람들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문서"라고 말했다.

LA대교구의 후안 오초아 신부는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역사나 과거의 유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오초아 신부는 "이번 전시회는 신앙의 풍부한 역사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직접 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라며 "복음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있는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유희 객원기자

규범 vs 자발성, 세상 보는 관점차

박검진의 종교·철학 여행

<7>유가와 도가의 차이점

폭정에는 목숨 걸고 충언 함께 행동하며 길들여야 폭군 대하는 태도도 달라

도가(道家)에 대해서 살펴보자. 춘추 시대에 태동한 제자백가 중의 하나로 노자가 창시했다고는 하나 노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유가(儒家)와 도가는 차이가 있다.

유가는 예의범절과 사회규범을 확립함으로써 혼탁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도가는 유가처럼 선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기준이 있으면 차별을 하게 되고, 나아가 권력이 되

고 폭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세상의 이치를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의 규범을 타파하고, 백성이 자발성을 가지고 삶을 누려야 국가가 더 부강해진다고 했다.

도가에 따르면, 만물은 도(道)로 인해, 무에서 유로 다시 무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도는 그 모든 생성과 변화의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도가 사상을 이데아와 같은 실체를 지니지 않는 일종의 현상학이라고 한다. 노자는 이 도를 무와 동일시했는데,

이는 유의 가능성을 내포하여 유무상생(有無相生)의 도라 했다. 그 도는 스스로 그러한 것. 즉, 자연으로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무위(無爲)사상이 나온다. 노자 사상을 오해하는 부분은 자연을 벗 삼으라고 해서, 숲속에 들어

가 원시인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이란,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인 도를 파악하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결국, 도를 도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유무(有無) 관계로 이루어진 도란 것은 항상 운동과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가 생긴 이유이다.

도가는 정치철학이다. 가령, '도덕경'이 오랫동안 제왕학의 교본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노자가 말한 무위(無爲)라는 것은 백성이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책을 읽고 만들어진 백성은 유위(有爲)라는 것이다.

즉, 폭군이 있다면 목숨 걸고 충언하는 것이 유가의 가르침이라면,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것은 철저히 배제해

야 하므로 일단, 폭군과 함께 행동하여 그를 길들인 후, 그로 하여금 스스로 폭정을 하지 못하도록 움직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점에서 도가와 유가는 서로 반목한다.

노자는 '무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려는 마음(욕망)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한다. 유가가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정치라면, 도가에서는 그런 철학이 없다. 노자는 천지(天地)가 인간을 딱히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도가의 성인(聖人)은 그러한 '자연'을 본받아 백성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성인은 심(心)을 초월했기 때문에 세계와 주변 상황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특정한 틀이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즉, 그대로의 세상을 직시하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에 대응하면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도가는 권모술수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로 노자는 '무위'를 통하여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즉, 백성에게 어떤 욕망이나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방향성이 생기지 않고, 항상 그들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우민화 정책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은 법가(法家)의 '한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법가를 숭상한 진시황은 백성의 배움은 죄악을 낳고, 책과 선비들이 죄악을 부추킨다고 생각해서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끔찍한 사태를 낳고 만다.

박검진
단국대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술경영학(MOT)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LG 반도체 특허협상팀 팀장, 호서대 특허관리어드바이저, 한국기술교육대 산학협력단 교수로 거쳐 현재 콜라보기술경영연구소 대표.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3월 **HOT** 리스팅

2025 주택 동향 (부동산 시장 불안정) 금리인하의 불확실성, 주택 매물 부족,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여전히 부정적.

주택 구입 전략!

1. 주택 대출 금액을 알아본다.
(세금보고서 2년치)
2. 주택 모기지 납입능력 금액을 책정한다.
3. 구입금액설정후 구입지역을 설정한다.

* 여러각도에서 같이 고민해 드리는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셀러 집 판매 전략!

- ★ 아직도 매매 물량이 부족한 시기라
집 팔기 좋은 시점입니다.
- ★ 셀러를 대변하는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에 연락주세요.

매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스탠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렌트 \$3,600

렌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찬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윤김 네오집스 리얼티 Broker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자율 협상 역량 강화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최근 셀러들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의 MLS 시스템 커미션 계사가 금지됐다. 관행이 안착하기 전 단계인 탓에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관련 역측이 나오고 있다. 이 중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바이어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

는 게 가장 큰 오해다. 실상은 이와 아주 다르다. 먼저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까지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번 소송은 셀러의 의사와 상관없

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꿔 말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셀러와 바이어가 나누어 커미션을 충당하는 것 역시 가능한 선택지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보조금을 크레딧으로 주고, 이를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활용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즉 매매 간 이해당사자 사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커미션 지급 주체와 규모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온전히 협상에 의해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커미션 지급 관련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셀러의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커미션을 왜 부담해야 하나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바이어는 용자 등 매매에 지출하는 비용 규모도 큰 와중에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지급해야 하나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큰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일각에선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부담이 너무 크고, 이들 에이전트의 커미션 금액이 업무량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에이전트 역시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업무에 임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리스와 매니

지먼트 등 갖가지 소송 위험을 짊어진다. 또한 복잡한 서류를 손보고, 까다로운 매매 절차를 거친다. 매매 한 건 한 건을 성공적으로 클로징하기 위해 이들 에이전트는 긴 세월 경험을 쌓는다. 위기상황 대처능력과 독심, 순발력, 인내심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지인에게 덜컥 일을 맡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향후 AI(인공지능)가 판매 부문을 대거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에이전트들이 보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지식, 노하우, 위기관리능력, 순발력 등을 갖추는데 힘을 쓴다면, 되레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실력 있는 에이전트들은 필터링을 통해 살아남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애니윤 골드웰 뱅커 베스트부동산

애너하임

지역경제 성장 힘입어 주택 가치 상향 곡선 단기임대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률 기대

가주 오렌지카운티의 애너하임은 따뜻한 기후와 다채로운 문화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1857년에 독일계 이민자들에 의해 설립된 애너하임은 초기에는 포도주 양조업이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도시명은 독일어로 '홈 바이 더

리버(Home by the river)'를 의미하는 '애너(Ana)'와 '하임(Heim)'의 결합어입니다. 애너하임은 20세기 중반까지 농업이 부흥했으나, 1955년 디즈니랜드 리조트가 개장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애너하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너하임은 지금도 매년 전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자연스레 관광업이 발전했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애너하임에는 디즈니랜드 말고도 에이절 스타디움과 혼다 센터 등 주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에게 역시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 가격과

높은 생활 수준 탓에 많은 사람이 애너하임 거주를 원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세는 지역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애너하임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애너하임은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부터 다양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 안정적인 성장 전망과 부동산 시장 등 팔색조의 매력을 고루 갖춘 도시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선명한 매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애너하임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한층 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교통 인프라도 강점입니다. 애너하임은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먼저, LA와 샌디에이고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편리한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 애너하임은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부터 다양한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 안정적인 성장 전망과 부동산 시장 등 팔색조의 매력을 고루 갖춘 도시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 주택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선명한 매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애너하임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한층 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겁니다.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오래전 완성된 고전,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도시국가)는 또 하나의 높은 도시, 아크로폴리스를 가졌다. 잘 알려진 곳은 단연 아테네로 평지 가운데 우뚝 솟은 150m 높이 바위산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도시를 내려보고 있다. 미케네 시대에 궁전이 있었고 불규칙한 지형을 보완해 높이 10m, 두께 6m의 단단한 성벽을 축조했다. 폴리스 시대가 되면서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를 위한 신전 도시가 되었다. 현재 모습은 아테네의 황금시대(기원전 460~430)를 주도한 페리클레

스 치하 때 만들어졌다. 페르시아 침략을 막았고, 민주정을 완성했으며,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된 최고의 기쁨물이었다.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지휘 아래 건축가 이크티누스 등 최고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면 정문인 프로피라이아에 들어선다. 광장 중앙에 9m 높이의 갑옷 입은 아테나 신상이



서서 전체의 중심을 이루었다. 양 옆으로 에레크테이온과 파르테논 두 신전이

당당한 모습으로 섰다. 이외에도 승리의 아테나 니케 신전 등 10여 동의 건물들이 산재했다. 여러 건물은 불규칙하게 배열된 듯하지만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다. 직교좌표가 아닌 극좌표에 따라 등각 배치된 시각적 결과로 분석한다.

파르테논 신전은 처녀신 아테나 파르테노스를 모신 곳이었다. 오스만 시

대에 화약고로 쓰이다 1687년 베네치아 군의 포격으로 내부와 지붕은 폭파되었다. 그러나 36개의 장엄한 도리아 식 열주의 외관만으로도 고전주의의 최고작으로 꼽힌다. 건물의 각 부분은 황금비의 정교한 비례를 따랐고, 기둥 지름을 기준 삼아 수학적 비례를 이룬다. 기둥의 배흘림이나 기둥을 기울인 안솔림 등 미세한 기법으로 거대 건물의 왜곡 현상을 바로 잡았다. 파르테논은 로마,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등 후대 건축과 예술의 고전적 모범이 되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Realty 1 Maryland. Includes contact info for Jinny Choi and Stacy Yang, and a 'RENT' section with property listings in Columbia, Odenton, Bowie, Pasadena, Germantown, and Glen Burnie.

US이주투어 **아주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수의 최신형 VIP버스를 운영합니다!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도 1위!**
 서울 02-522-8686 ■ info@usajutour.com ■ 무료픽업 가든그로브, 놀워, 토렌스, 가디나, 풀러턴, 세리토스, 부에나비자, 다이아몬드비, 로렌하이츠, 엘바인(4명이상) 등
 가족, 친구, 지인에게 추억을 선물하세요! 이주투어의 여행상품권 AJUMONEY! **아주 항공부** 한국행 항공 아주가 답이다! 마지막으로 전화주세요! 최저가 비행기 티켓은 아주!

50주년 기념
 중앙일보 50주년
 아주투어 40주년
공동기획

40년을 아주 명품 유럽! 북유럽 서유럽 전문인솔자+현지가이드! 아주 좋은 이유!

100년의 역사를 무료로 드립니다
 서유럽 11일 투어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식물성 고리 올리브 비누를 1가정 당 1개씩 드립니다. 40여년 유럽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물건 수령은 파렌체에서 로마가는 길에 수령 가능합니다

서유럽 11일 \$3399+항공료
 7일 \$2299+항공료
 ▶3/20, 4/3, 17, 5/1, 15, 6/5, 19, 7/8, 29
 8/12, 9/2, 16, 30, 10/14, 12/21
아주투어는 전일정 네임드 호텔만 사용합니다!
 런던 1박(힐튼) | 파리 2박(Pullman Paris) | 스위스 1박(센스타) | 로마 3박(세라토 로마)

이태리일주 7일 \$1999+항공료
 ▶3/24, 4/7, 21, 5/5, 19, 6/9, 23, 7/12, 8/2, 16, 9/6, 20, 10/4, 18, 12/25

얼리버드 스페셜(2월 28일까지 연장 세일)
\$1000 할인! 북유럽/발틱 7개국 14일 \$4999+항공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5/19, 6/4, 16, 7/15, 8/5, 19, 9/2

\$800 할인! 북유럽 4개국 11일 \$4199+항공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5/19, 6/4, 16, 7/15, 8/5, 19, 9/2

\$200 할인! 발틱3개국 6일 \$1999+항공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5/27, 6/12, 24, 7/23, 8/13, 27, 9/10

\$700 할인! 영국일주+튤립축제(네덜란드) 12일 \$5199+항공료
 ▶4/21 \$5899
 인솔자 동행, 논스톱 왕복항공 포함, 특급호텔, 네덜란드 튤립축제 참가 등.

\$500 할인! 영국일주 10일 \$4399+항공료
 ▶4/21 \$4899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만토리니 숙박! 튀르키예/그리스일주+산토리니 13일 \$3199+항공료
 ▶4/8, 5/13, 6/3, 9/16, 10/7

튀르키예일주 10일 \$1699+항공료
 그리스일주+산토리니 6일 \$1999+항공료
 ▶4/14, 5/20, 6/9, 9/22, 10/13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13일 \$2999+항공료
 ▶4/19, 5/8, 9/10, 10/1

스페인/포르투갈 11일 \$2499+항공료
 ▶4/2, 30, 5/14, 6/4, 9/9, 23, 10/15

동유럽/발칸 13일 \$3299+항공료
 ▶4/18, 5/2, 23, 6/13, 7/11, 8/1, 9/4, 18, 10/2, 16

동유럽일주 7일 \$2099+항공료

크로아티아 발칸일주 9일 \$2599+항공료
 ▶4/22, 5/6, 27, 6/17, 7/15, 8/5, 9/8, 22, 10/6, 20

스위스일주 7일 \$4399+항공료
 ▶4/29, 6/11

남프랑스 8일 \$3999+항공료
 ▶4/21

영국+스위스일주 15일 \$8999+항공료

코카서스 3국 11일 \$3499+항공료
 ▶4/17 아르제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

추억이 달라지는 여행!
US이주투어
 CST 2052210-10
1-800-933-3011
 LA 직통 213-388-4000 | 2789 W Olympic Blvd, #102, L.A., CA 90006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본 상품은 LA출발 가격입니다. 다른 도시의 출발은 계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모국 관광
 1. 27인승 VIP 버스 2. 초특급 5atar 호텔 3. 전국 각지 맛집 탐방 4. 한국지사 직접운영 단독출발인자 꼭 확인하세요! 여행의 질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제주+모국일주 10일 ▶수 \$2199+항공료
제주+모국일주+서울 11일 ▶수 \$2499+항공료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전통성당, 담양 죽녹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순천 낙안읍성, 여수 오동도, 낭만포차 거리, 진주 축석루, 통영 중앙시장, 외도, 제주 2박(통갈치구이, 후대지구이 특식 2회), 부산 국제시장, 경주 불국사 & 동궁과월지, 안동 하회마을,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설악산 국립공원, 신홍사, 권금성 케이블카
부영 호텔 (신과 가능) 제주 3일 ▶일 \$499+항공료
서해/제주 동해/제주 ▶일 \$1499+항공료
서해/남해 5일 동해/부산 4일 ▶수 \$999+항공료
 라디오 서울 창사 33주년 기념! 아주관광 함께합니다!
2025 봄꽃 일주 7일 ▶3/26, 4/2 \$1599+항공료
 경복궁 한복 입고 관광, 청와대, 롯데 타워, 인촌속, 신정 한방 체험, 남해 봄꽃 관광
일본 일주 7일 ▶3/18, 25 \$1899+항공료
 신간선 2회 온천호텔 3박, 호텔朝食 및 특급식사, 인천 공항에서부터 가이드 동행
봄꽃일주+베트남/캄보디아 14일 ▶3/26, 4/2 \$2799+항공료
봄꽃일주+일본 14일 ▶3/18, 25 \$35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항공료
 ▶3/21, 4/1, 16
 하노이, 엔트, 하롱베이, 티툼섬, 씨엠립, 앙코르 톰, 앙코르와트, 톤 레이크 등

정통미서부
새 5성 호텔! 폰테인블루 숙박
아주단독! 라스베가스 스피어
아주로만 가야하는 5가지 이유!
 1. 새 5성급 호텔 라스베가스 폰테인 블루 숙박!
 2. 한인 유일의 컨트랙 라스베가스 스피어!
 3. 꼭 확인하세요! 라스베가스 2박인자!
 4. 최신형 버스! 32인승 새 VIP 버스!
 5. 단독 컨트랙! 요세미티 마리포사 그로브!
라스베가스 조인
미서부안전일주 7일 ▶월 \$1469+항공료
 2개 상물이 하나로! 더 착한 가격 & 알찬 일정! 그랜드캐년, 브라이스, 자이언, 앤텔롭캐년, 라스베가스,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술행 등
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앤텔롭캐년 4일 ▶월 \$809+항공료
아주단독! 페이지 햄튼 숙박! 라스베가스 조인
미서부 투어의 핵심 4대캐년을 한번에!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월 \$889+항공료
 레디스, 메리엇 특급호텔 2박,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17마일, 술행 등
라스베가스 조인
그랜드 씨클+세도나 7일 ▶월 \$1339+항공료
미동부 뉴욕맨하탄, 워싱턴DC,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 퀘벡, 몬트리올, 우드버리 등)
5일 ▶수, 토 \$1150+항공료
8일 ▶수, 토 \$1700+항공료
 올드퀘벡 숙박
캐나다동부 6일 ▶목 \$1399+항공료

힐튼호텔/엘로스톤 시내 숙박! 아주단독! 최신형 대형버스 보장!
엘로스톤/그랜드티톤 4일 ▶월 \$899+항공료
 아주단독! 강가 신축 힐튼호텔, ▶첫출발 5/12, 매주 월, 금
 한인관광사 유일 엘로스톤 시내숙박, 전일정 호텔 조식은 아주 뿐!
출발보장! 밴프 숙박 보장! **발데즈 오션뷰 호텔 2박!**
캐나다 록키 6일 ▶매주 월 \$1199+항공료
 ▶매주 월 \$1699+항공료
 록키 5대 호수를 가는지 꼭 확인!
 모래인 호수, 페이트 호수, 보우 호수
 루이스 호수, 에메랄드 호수
 미국의 스위스! 발데즈 숙박, 연어회+와인특식, 세계최대 국립공원 (세계 최고 육지방한 마타누스카 방하)
큰바위얼굴/크레이지호스 4일 ▶월 \$1049+항공료
 ▶5/23, 7/4, 8/29

아주 크루즈
얼리버드 할인예약!! 크루즈의 특성상 오래되고 신뢰 할 수 있는 회사가 운영해야安心이 됩니다! 크루즈도 아주가 정답입니다!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아이슬랜드/그린랜드 크루즈+레이카비크 14일 \$5350 ▶8/20(2월 28일까지 예약시) \$5799 ▶6/10
로얄 프린세스호(14인5천톤) | 가이드 동행, 유람선+세금+항만세 포함
알래스카 8일 ▶5/24, 6/7, 28, 7/12, 26, 8/16, 30, 9/13 \$1499+항공료
바하멕시코 5일 ▶4/28, 5/12 \$499+항공료
멕시코라비에라 6일 ▶6/3, 7/15, 8/12, 9/9, 10/2 \$549+항공료
롱비치 출발 가이드 동행 **롱비치 출발 가이드 동행**
서지중해발코니 10일 ▶3/26, 10/31 \$3099+항공료
웨스턴카리브해 8일 ▶5/24, 6/7, 28, 7/12, 26, 8/16, 30, 9/13 \$1099+항공료
가이드 동행, 항공료 포함 **가이드 동행**

여행 고수와 경험자들이 선택하고 추천하는 아주는 고품격 투어! 차원이 다릅니다!!

몽골+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4개국 14일 ▶5/12 \$5900+항공료
특급호텔
 특전: 전일정 식사, 부하라 공연시, (몽골) 허르허, 사브샤브, 열차/국내 항공료 포함, 유람선, 곤돌라
 몽골: 낙타투어, 전통공연, 전 입장료 포함
중앙아시아 3개국 12일 \$4900+항공료
 ▶5/12 특급호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남미일주 13일 ▶3/20, 4/12 \$4699+항공료
브라질/아르헨티나 7일 ▶3/20, 4/12 \$2599+항공료
페루일주 7일 양카, 마추픽추, 나스카 \$2199+항공료
 ▶4/7, 21, 5/5, 19
멕시코시티&중부 5일 ▶월 \$1249+항공료
우유니사막(블라비아)+페루일주 10일 \$3899+항공료
 ▶4/7, 21, 5/5, 19

코스타리카 6일 \$1149+항공료
 ▶3/17, 24, 31, 4/7, 14, 21
 세계최대의 활화산온천에서 야외 온천 때바곤 온천욕, 호텔 식사, 로스라고스 천연온천호텔 2박
칸쿤 ▶매일출발 **HYATT 오션뷰(올인크루지비)**
4일 \$1100+항공료 **5일** \$1500+항공료 **6일** \$1900+항공료
로스카보스 (바하 캘리코니아) ▶2인이상 수시 **올인크루지비**
4일 \$1050+항공료 **5일** \$1350+항공료 **6일** \$1650+항공료

아르헨티나 & 칠레 파타고니아 가이드 동행!
파타고니아 16일 \$11900+항공료
&빙하탐사 크루즈 특급호텔 ▶4/10, 11/6, 12/4
 여기를 없다면 파타고니아를 만난 것! 토레스 델 파이네! 기막히게 멋진 국립공원 푸에르토 나탈레스! 지구의 최남단 **빙하마을 우수아이아!**
칠레/빙하탐사 크루즈 10일
칠레 파타고니아 \$8449+항공료
 ▶4/10, 11/6, 12/4

성지 순례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7일 \$5499+항공료
 ▶11/10 **전문 가이드 동행, 전일정 입장료 포함**
이집트/요르단 12일 \$3999+항공료
이집트일주 9일 \$3299+항공료
 ▶11/10

동남아&일본 아주에서 가시면 안심입니다! 한국지사에서 목적을 골라 편안하고 알찬 일정으로 모십니다!
일본일주 7일 \$1899+항공료
베트남/캄보디아 7일 \$1199+항공료
 ▶3/18, 25
태국/캄보디아/베트남 12일 \$1700+항공료
 ▶3/24, 4/14, 10/20, 11/3, 11/17

하와이/마우이 ▶월, 목 출발, 공항 왕복픽업 호텔朝食, 오하우섬 일주 호놀룰루 시내관광,
와이키키 리조트 **와이키키 메리엇** **해트 리전 와이키키** **세라토 와이키키**
4일 \$949+항공료 **4일** \$1149+항공료 **4일** \$1249+항공료 **4일** \$1399+항공료
5일 \$1099+항공료 **5일** \$1349+항공료 **5일** \$1499+항공료 **5일** \$1749+항공료

세랑게티 & 초해 & 응고응고 국립공원 사파리 아주관광 단독팀 보장
아프리카+UAE 두바이 ▶10/15 \$9999+항공료
아부다비 ▶2/20/26
미국회사 \$25,000 밸류 특별세일(3월 31일까지)
베테랑 가이드 동행!
 1. Victoria falls 특급 호텔 2. 6성급 사파리 핫지 호텔
 3. 에어온 프리미엄 사파리 차 4. 사파리투어를 항공이동으로 2일 절약
 5. 두바이 레이저 빔 & 분수쇼 관람하며 식사 6. 테이블 마운틴에서 익스프레스 케이블카

피지 힐튼! 호텔 비교! 가격이 다른 품질이 다릅니다!
남태평양 **A 피지/호주/뉴질랜드** **B 뉴질랜드/호주**
A 13일 \$3799+항공료 **B 11일** \$3299+항공료
가이드 동행! ▶3/18, 4/9

인도/네팔 14일 ▶11/10 \$4899 ▶\$4299+항공료
가이드 동행! \$600 할인!
 NO 흡선, 델리 IN & OUT, 국내선 항공 5회, 전일정 5성급호텔, 전통식 & 호텔식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LA출발 비수기 주중요일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각 상품별 요금은 US이주투어 웹사이트 www.usajutour.com에 명시되어 있듯이 필수 서비스 Fee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밋게 치며 LIV 적응... 5월 기대하세요”

“세 번의 대회를 경험했습니다. 점점 적응하고 성장하는 게 느껴져 만족합니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 클럽에서 만난 장유빈(23)은 여유가 넘쳤다. 인터뷰 내내 “재밋게 치고 있다”고 반복했다. 미리 준비한 의례적 얘기라면 표정 등에서 드러나기 마련인데, LIV 골프와 동료, 대회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자연스레 번졌다.

장유빈은 자타공인 한국 남자 골프 최고 기대주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무대에서 처음 풀타임을 소화한 지난해 전관왕에 올랐다. 상금(11억2904만7083원), 최저타수(69.4), 다승(2승), 톱10 피니쉬(11회), 장타(311.30야드)에 제네시스 대상까지 휩쓸며 투어를 평정했다.

‘드라마’ 요소도 겸비했다. 수려한 말솜씨와 쾌활한 성격, 화끈한 세리머니 등 팬을 사로잡는 매력 포인트가 즐비하다. 손자의 성공을 위해 10여 년간 운전대를 잡고 함께 전국을 누빈 할머니(차화자) 스토리가 더해졌다. 팬들이 장유빈을 ‘육각형 플레이어’(여러 가지 장점을 갖춘 선수)로 불리는 이유다. 그런 장유빈이 지난해 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진출을 준비하다 LIV 골프로 진로를 선회하자 팬들 반응이 엇갈렸다. ‘PGA 투어를 평정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다’와 ‘세계적 선수들 사이에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교차했다.

“LIV 골프에 100% 만족한다”고 강조한 장유빈은 “여기선 팀(아이언헤드)



KPGA 투어를 평정하고 LIV 골프에 진출한 장유빈은 “좋은 성적을 올려 LIV의 매력을 한국에 알리고 싶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유일한 한국국적 선수 장유빈
작년 KPGA 평정 후 새 무대 도전 초반 세 번의 대회서 ‘톱10’ 실패 5월 2~4일 한국서 첫 LIV 투어 “좋은 성적으로 국내 팬들에 보답”



LIV 골프 싱가포르 대회 개막(14일)을 이틀 앞두고 본지와 인터뷰한 장유빈. 송지훈 기자

에 소속돼 개인전과 팀전을 병행하는데, 팀의 막내다 보니 아무래도 형들 도움 받는 부분이 많다”며 “긱은일은 케빈(나) 형이 처리해준다. 좋은 리더를 만나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LIV 골프는 기존 대회의 룰을 줄줄이 깎았다. 54명의 선수가 컷 탈락 없이 3라운드 54홀 결과로 순위를 가린다. 샷간 방식(모든 조가 각 홀에서 동시 티오프)을 적용하고, 모든 홀에서 음악과 함성이 울려 퍼진다. 대회 내내 떠들썩하고 흥겹다.

장유빈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LIV 골프에서 세 번의 대회를 치렀는데, 아직 톱 10에 들지 못했다. 49→23→40위. 하지만 아직 개이치 않는다. 그는 “시차부터 환경까지 처음인 게 너

무나 많다”며 “매 대회 업 다운이 있지만, 이런 경험이 더 큰 선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선은 5월에 맞춰져 있다. 2022년 출범한 LIV 골프가 한국(즉 니콜라우스 골프 클럽·5월 2~4일)에서 첫 대회를 연다. LIV 골프의 유일한 한국국적 선수인 그는 “아이언헤드는 한국계 선수가 주축인 팀이다. 한국 대회를 잘 치르는 게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좋은 성적을 곁들여 LIV 골프의 매력을 한국 팬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최근 PGA 투어와 LIV 골프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장유빈은 “논의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다”고 털어놓았다. 싱가포르=송지훈 기자

김민재·이강인 나란히 챔스 8강

김, 촘촘한 수비로 팀 완승 기여

김민재(29)의 활약 속에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12일(한국시간) 열린 2024-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2차전에서 바이어 레버쿠젠(독일)을 2-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뮌헨은 해리 케인이 1골·1도움을 올렸고, 1:2차전 합계 5-0으로 앞섰다. 뮌헨은 인터밀란(이탈리아)과 4강 진출을 다룬다.

아킬레스건 통증에도 이번 시즌 거의 전 경기에 출전해온 김민재는 지난 8일 분데스리가 한 경기를 건너뛰었다. 휴식 덕분인지 ‘촘촘제’라는 새 별명처럼 촘촘한 수비를 펼쳤다. 특히 후반 막판에 함과 스피드로 상대 공격수 제레미 프림퐁을 두 차례나 제압했다. 10차례 공을 건어냈고 공중볼 경합에서 5차례 승리했다. 독일 매체 TZ는 “적절한 타이밍에 역습을 저지했다”는 평가와 함께 평점 2점(1~6점 중 낮을수록 좋은 평가)을 줬다.

이강인(24)의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도 16강 원정 2차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리버풀(잉글랜드)을 제압하고 8강에 올랐다. 이강인은 이날 벤치에서 시작했다. 최근 주전 경쟁에서 이강인에 앞선 우스만 덴벨레가 브래들리 바르클라와 선제골을 합작했다. 홈 1차전에서 0-1로 졌던 PSG가 합계 1-1을 만들면서 경기는 연장애 들어갔다. 이강인은 연장 전반 11분 교체 투입됐다. 결국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박린 기자

우승 상금 65억원 ‘쩨의 전쟁’...세플러, 첫 3연패 도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오늘 개막
세계랭킹 50위권 선수 중 48명 출전 김시우·안병훈도 ‘깜짝 우승’ 기대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개막을 앞둔 11일 아침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에 추웠다. 대회가 열릴 TPC 소그래스(7352야드)의 연습장에서 만난 2017년 챔피언 김시우(30)는 “컨디션은 좋은데 날씨가 너무 춥네

요”라고 말했다. 해가 중천에 오른 뒤에야 따뜻해졌다.

13일(한국시간) 개막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PGA 투어가 LIV 골프에 대해 총상금 2500만 달러(약 363억원)를 걸고 만든 대회다. 4대 메이저 대회보다 상금이 많다. 우승 상금(45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도 LIV 골프 개인전(400만 달러)보다 많다. 선수들 경쟁이 뜨겁다. 세계랭킹 50위 이내 선수 중 LIV 골프의 티털 해턴(34), 브라이슨 디샬보(32)를 뺀 48명이 출전한다.

세계 1위 스코티 세플러(29)는 대회 최초의 3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안병훈(34)은 여유가 있었다. 대회를 앞두고 열린 골프 스킬 챌린지에서 웨지로 볼을 튀기다 공을 쳐 내는 묘기를 선보였다. 타이거 우즈가 나이기 광고에서 선보였던 그 묘기다. 처음 너댓번 실패하자 “편직하면 안 되느냐”는 농담까지 했다. 지난주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톱 10에 든 그는 “최경주와 김시우 등 한국 선수들이 우승했던 이 대회 챔피언이 되면 영광이겠다”고 말

했다. 임성재(27)도 표정이 밝다. 지난주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 어려운 후반 9홀에서 버디 5개를 잡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페덱스 랭킹 16위에 세계랭킹 22위 등 각종 기록이 나 순위로 관창다.

나머지 한국 선수는 마음이 다소 급하다. 김시우(30)는 아직 마스터스 초청장을 못 받았다. 세계 68위인 그는 랭킹 포인트가 많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점수를 따야 한다. 폰테베드라 비치(미국)=성호준 골프전문기자



레버쿠젠 공격수 제레미 프림퐁(오른쪽)과 후반 막판 공중볼을 다투는 김민재. [연합뉴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대..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ue in: 도착 예정 시간

Elliott is talking to his friend, Mark, on the telephone.

(엘리엇이 친구 마크와 전화하고 있다.)

Elliott: So, when is your plane due in?
엘리엇: 그래,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이 언제야?
마크: Thursday at 11 am. Can you pick me up at the airport?
마크: 목요일 오전 11시야. 공항으로 데리러 나올 수 있어?
엘리엇: Sure. It'll be great to see you. I'm going to show you the sights.
엘리엇: 그럼, 다시 보면 너무 반갑겠다. 여기 관

광지 보여줄게.
마크: Great. We'll have to take in a few jazz clubs. 마크: 좋지. 재즈 클럽도 좀 다녀야 돼.
엘리엇: And bring your hiking boots. We can kick back at this beautiful waterfall.
엘리엇: 하이킹 신발 가져와. 여기 멋진 폭포가 있는데 거기서 쉬자.
마크: It sounds great. 마크: 좋아.
엘리엇: You'll be here for a week, right?

엘리엇: 여기 일주일 있을 거지, 그치?
마크: Yes. I'm coming in on Thursday and leaving the following Thursday.
마크: 응. 목요일에 갔다가 다음주 목요일에 떠날 거야.
엘리엇: I can also drive you to the airport next Thursday.
엘리엇: 다음주 목요일에도 공항에 데리러 줄게.
마크: Terrific. 마크: 잘됐다.

기억할만한 표현
▶ show (one) the sights: 관광지 소개하다.
"I showed my parents the sights when they were visiting me last week." (지난 주에 부모님이 오셨을 때 관광지를 보여드렸어요.)
▶ take in (something): 구경하다.
"I'm going to take in a Broadway show when I'm in New York."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 쇼를 구경할 거야.)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 올림픽 체조 경기의 한 종목. 이것을 뛰어넘을 때는 디딤판을 사용해도 되며 남자는 세로로, 여자는 가로로 뛰어넘는다. (2) 옥같이 잘생긴 사내아이 (4)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못 (5)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 시설 (6)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지정한 날 (7) 앞길의 행복을 비는 말. 고사를 지내며 부르는 축원덕담, 살풀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9) 손이나 발에 생기는 사마귀 비슷한 굳은살 (10) 불경을 외는 일 (13) 이 동네 저 동네. ~ 소문이 자자하다 (15) 철봉, 펌틀, 평행봉, 링, 평균대 따위를 사용해서 하는 운동 (18) 많은 사람이 아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아이들의 ~에 혼이 빠질 지경이다 (20) 범의 야가리.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 순순히 널 따른다고 날 ~로 아니? (21) 물빛이 맑아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 (23)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 (24)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힘 (25) 어린이의 마음 (26) 남이 시키는 일을 하여 주는 일 (27) 시고 못생긴 열매. 과일을 망신시키죠.

세로열쇠

(1) 은 나와라 똑딱, 금 나와라 똑딱,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있어요 (2) 옥에 새긴 임금의 도장 (3) 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적게 내린 눈 (4)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 (5) 여러 가지 재료를 알맞게 맞추어 음식을 만들 (8) 여행 중에 있거나 탄 곳에 임시로 가 있는 사람. 지나가는 ~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지요? (9) 티와 먼지. 몹시 작거나 적음.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만큼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11) 죽지 않는 새. 고난에 빠져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 (12) 돼지의 가죽에 붙은 허연 기름 조각 (13) 여러 사람이 두루 건드리거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 반 아이들에게 걸맞으면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 신세였다 (14) 작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에 쓰던 무기 (16) 몸무게를 재는 데에 쓰는 저울 (17) 올림픽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김연경 선수가 있죠 (19) 팔죽 속에 들어 있는 동글동글한 덩이 (20)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21) 하늘에서 버려지는 일 (22) 꽃감이 들어가는 전통 음식 (24) 지주 대신에 소작지를 관리하는 사람.

스도쿠

5	2			6		9	1	8
	4			2	7	8		
6		3	9					4
2				1		8		
	7		4					
3	1					5	4	
8					5		9	
				9				7
	9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5	4	9	3	8	1	6	7
7	8	3	2	6	1	9	5	4
9	6	1	5	4	7	2	3	8
6	5	7	2	9	8	1	3	4
1	9	2	3	8	4	5	7	6
3	7	8	9	1	5	4	6	2
4	2	7	1	5	6	3	8	9
5	3	9	8	7	2	6	4	1
8	1	6	4	9	3	7	2	5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건강마을 Health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봄맞이 특별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쏘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102개의 지압봉 백들이 온열지압 온열 지압침대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무이자 할부 최고 36개월

지압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널 제품

102개의 지압봉 + 2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 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봉 기계

지압봉 모션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향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폼'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본토휴침대 100% 생향토

sale

sale

\$2,900 \$2,300 \$3,000 \$2,500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숙면 돕는 찜질 효과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원적외선 명품매트

휴표 휴 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 흡수 전자파 완전 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턴 지정 대리점

월턴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 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티킹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3 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kg 가벼운 체우고 따르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몸속까지 시원한 수직 마사지와!

Made in KOREA

1740엔

강력 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심, 관상동맥 질환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누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뢰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129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회몽 매트

2020년 최우수 제품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알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속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창문
WINDOW
SPECIAL**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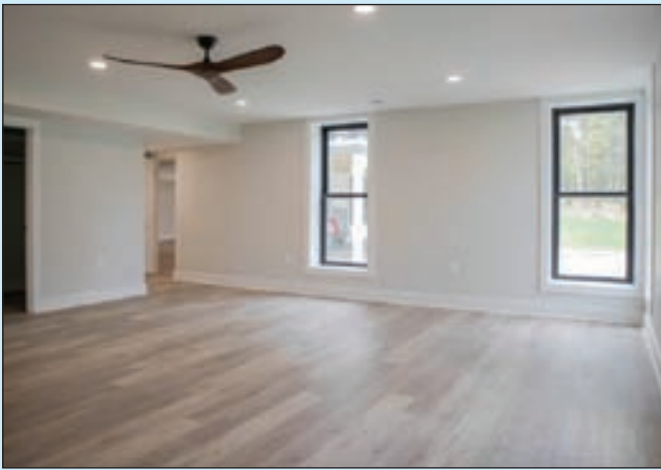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지붕 ★
스페셜 프로모션
10sq 이상
\$3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3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라이센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연매상 100만+25만
-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곽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기계 디자인
만큼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밀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 / 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반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프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캐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독자가 행복 해진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지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5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5 봄학기 개강 3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상담전화 | 213-272-6031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기타 지역 **매매**
40년된 덴탈랩매매
 살기좋은 세크라멘토지역 품격있는 고객들과 성장할 아주 좋은 기회 ("가격문의) 꼭 관심있는분 이메일주세요 Hcho07@sbcglobal.net
세탁소매매
 텍사스지역 가격\$18만, 렌트\$1,400 월매상 \$25,000 (806)894-3044 (213)663-2770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미국 리얼리티 모든 것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어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힐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양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박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박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담임목사 및 부목사 청빙
 나성교회는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와 부목사 각각 1인을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
 - 정규 4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
 - 미국에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신 분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가족소개서(사진포함)
 - 신앙 고백서
 - 목사 안수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 추천서 3장
 - 최근 6개월내 설교 CD/DVD/MP3 2회분

기타 사항
 - 접수는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oad
 La Habra Heights, CA 90631

특점 Annandale 콘도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까움

\$ 210,000



Contract

특점 Manassas 타운홈 렌트

1 Car Garage, 방 3, 화장실 4
집 전체 업데이트, 모델 홈처럼 예쁜 집,
집 모두 새 나무 마루,
부엌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임, 코스트코 가까움

\$ 2,600



특점 Lorton 타운홈 렌트

엔드 유닛, 2 Car Garage,
최고로 업데이트된 럭셔리 홈, 전체 나무 마루,
탁트인 부엌, 넓은 DECK, 방4, 화장3 1/2

\$3,600



Contract

특점 Annanda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업데이트된 예쁜 타운홈,
리모델링한 부엌, 집 전체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Large Deck, 교통 편리

\$710,000



Sol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